

지역노동시장연구(3)

-광주, 전남지역-

目 次

| | |
|-------------------------------|----|
| I. 머리말 | 1 |
| II. 光州·全南 勞動力의 概觀 | 3 |
| 1. 인구의 구조와 변동 | 3 |
| 2. 경제활동인구 | 7 |
| 3. 기혼여성 노동력의 성격 | 10 |
| III. 光州·全南 勞動力의 質 | 16 |
| 1. 학교 교육 | 16 |
| 2. 직업훈련 | 22 |
| 3.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 | 26 |
| IV. 光州·全南 地域 勞動市場의 就業構造 | 32 |
| 1. 산업별 취업자 | 32 |
|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34 |
| 3. 직업별 취업자 | 40 |
| 4. 학력별 취업자 | 42 |
| V. 光州·全南 勞動市場의 機能 | 45 |
| 1. 실업률 | 45 |
| 2. 취업경로 | 46 |
| 3. 구인·구직동향 | 48 |
| VI. 政策課題 및 提言 | 56 |

| | |
|---------------------------|----|
| 1.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확보 | 56 |
| 2. 노동력 구성 변화에 대한 대책 | 58 |
| 3. 교육훈련 | 60 |
| 4. 노동시장 기능제고 | 62 |
| 參攷文獻 | 64 |

表 目 次

| | |
|---|----|
| 〈표 II-1〉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 4 |
| 〈표 II-2〉 연령계층별 인구분포(1995) | 4 |
| 〈표 II-3〉 노령화지수 추이 | 5 |
| 〈표 II-4〉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95) | 6 |
| 〈표 II-5〉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1991~96) | 7 |
| 〈표 II-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1996) | 8 |
| 〈표 II-7〉 비경제활동의 사유(남자 : 1996) | 9 |
| 〈표 II-8〉 비경제활동의 사유(여자 : 1996) | 9 |
| 〈표 II-9〉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 | 10 |
| 〈표 II-10〉 시간제를 희망한다면 그 이유 | 11 |
| 〈표 II-11〉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 | 12 |
| 〈표 II-12〉 시간제 근로시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 | 13 |
| 〈표 II-13〉 시간제 근무 희망업종 | 13 |
| 〈표 II-14〉 시간제 근무자의 시간당 희망임금 | 14 |
| 〈표 II-15〉 시간제 근로자의 최소희망 월임금 | 14 |
| 〈표 III-1〉 재학생 현황(1997) | 17 |
| 〈표 III-2〉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진학률(1997) | 17 |
| 〈표 III-3〉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 19 |
| 〈표 III-4〉 공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 20 |
| 〈표 III-5〉 상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 21 |
| 〈표 III-6〉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현황 | 22 |
| 〈표 III-7〉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 22 |
| 〈표 III-8〉 학교 교육에 의한 기본적인 작업처리능력 습득 정도 | 23 |

| | |
|---|----|
| 〈표 III-9〉 근속년수 | 24 |
| 〈표 III-10〉 직업훈련기관(1995) | 25 |
| 〈표 III-11〉 기능사 직업훈련실적(1995) | 25 |
| 〈표 III-12〉 직업훈련 모집 및 승인인원(1996) | 26 |
| 〈표 III-13〉 작업내용 변화에 대한 적응성(관리자의 응답) | 27 |
| 〈표 III-14〉 작업내용 변화에 대한 적응성(근로자의 응답) | 28 |
| 〈표 III-15〉 근로자의 책임감 | 29 |
| 〈표 III-16〉 근로자들의 충실성 | 29 |
| 〈표 III-17〉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사 방침에 대한 태도 | 30 |
| 〈표 III-18〉 타지역 근로자와 비교한 생산성 | 30 |
| 〈표 III-19〉 노무관리상 문제점 | 31 |
| 〈표 IV-1〉 산업별 취업자 구성 추이 | 33 |
| 〈표 IV-2〉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취업자 비율 | 34 |
| 〈표 IV-3〉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 35 |
| 〈표 IV-4〉 산업별 일고의 비율(1992) | 36 |
| 〈표 IV-5〉 종사상지위의 변화(1993~96) | 37 |
| 〈표 IV-6〉 취업자의 이전 경제활동상태(1993~96) | 38 |
| 〈표 IV-7〉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1993~96) | 39 |
| 〈표 IV-8〉 직업별 취업자 구성 | 40 |
| 〈표 IV-9〉 직업별 취업자 구성변화(1993~96) | 42 |
| 〈표 IV-10〉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 43 |
| 〈표 IV-11〉 종사상지위별 학력 분포 | 44 |
| 〈표 V-1〉 실업률 변화 추이 | 46 |
| 〈표 V-2〉 취업자의 취업경로 | 47 |
| 〈표 V-3〉 직업소개기관 설치현황(1995년 말) | 47 |
| 〈표 V-4〉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1996. 12.) | 49 |
| 〈표 V-5〉 직업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50 |
| 〈표 V-6〉 학력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51 |

| | |
|---|----|
| 〈표 V-7〉 기능수준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52 |
| 〈표 V-8〉 고용형태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53 |
| 〈표 V-9〉 고용형태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여자) | 54 |
| 〈표 V-10〉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55 |
| 〈표 VI-1〉 관리직의 광주·전남 지역 근무중 애로사항 | 57 |

I. 머리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별 노동시장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지역은 상이한 노동수요·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노동시장 수급구조의 파악은 국가경제 전체로 노동력 이동비용을¹⁾ 고려할 때 지역별 산업배치에 관한 제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간 노동이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²⁾ 노동력 구성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의 부존자원과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르므로써 노동의 수요구조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의 운용은 중앙집중적이어서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은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 의해 야기되어온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며, 그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
- 1)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 이동은 경제주체들의 이주비용과 함께 교통, 주택 문제, 지역간 소득격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며, 산업의 지역배치에 관한 정책수립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2) 1996년 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전남 출신 경제활동인구 중 58.0%가 광주·전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은 그 비율이 훨씬 높은 66.5%, 79.2%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광주·전남 출신의 1.2%만이 전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전북 출신의 1.3%만이 광주·전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대우경제연구소, 1997).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대상 지역을 전라도권으로 하지 않고 광주·전남으로 국한한 연구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위한 투자 유치,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 구조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지역노동시장도 수요공급 양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현황 및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노동시장 분석은 대부분 전국단위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의 광주·전남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³⁾ 이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 노동수요·공급구조의 특징, 최근의 고용관행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이 지역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의 공급구조, 수요구조, 시장기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의 공급구조는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 경제활동상태별·성별·연령별·학력별 노동력 구조 및 기혼여성 노동력의 성격 등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노동생산성 등이 분석되며, 노동의 수요구조에서는 산업별·직종별·종사상지위별·학력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가 분석된다. 한편 시장기능에서는 실업률, 구인·구직 경로,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 과부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제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인력배치, 고용확대 및 안정을 위해 기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발행된 정부의 통계자료 분석을 주로 하였고, 지역통계가 부족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설문조사 파일과 필자의 다른 연구에서 실시한 주부 및 시간제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3) 광주·전남의 고용구조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광주권의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전망에 대한 연구로는 윤석구(1990),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연구로는 김종재·박성수(1991), 기능인력난에 초점을 맞춘 산업인력 수급현황을 분석한 홍성우(1992), 대기업의 투자여건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한 홍성우(1994) 등이 있다.

II. 光州·全南 勞動力의 概觀

노동력의 공급은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양적인 측면으로 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변화와 특징, 인력활용 확대가 요구되는 기혼여성 노동력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제III장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학교교육, 직업훈련, 현장훈련 현황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질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인구의 구조와 변동

가. 인구의 변동

노동공급의 기초가 되는 인구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는 절대수 및 상대적인 구성비율 모두 감소해 왔다. 1955년 3,128천 명이었던 인구는 1960년대 중반 400만 명을 약간 넘어서서 1974년 4,127천 명을 정점으로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또한 <표 II-1>에서 보여주듯이 전국인구가 1955년부터 1995년까지 40년간 약 2배로 증가한 반면, 이 지역 인구는 약 10% 증가함에 그쳐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5%에서 7.8%로 하락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공업화와 함께 이농이 급속히 이루어진 196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고갈되어 무제한적인 노동공급이 전환점을⁴⁾ 맞는 1970년대 말까지 현저하여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간에 약 1%포인트씩 하락하였다. 이것은 공업화가 경인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이루어

4) 배무기(1982. 12.).

진 반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됨으로써 노동력이 타지역으로 대량 이동한 결과이다.

〈표 II-1〉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단위 : 천명, %)

| | 1955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전 국 | 21,502 | 24,989 | 29,160 | 31,435 | 34,679 | 37,407 | 40,420 | 43,390 | 44,551 |
| 광주·전남 | 3,128 | 3,553 | 4,050 | 4,006 | 3,985 | 3,779 | 3,748 | 3,652 | 3,474 |
| 구성비 | 14.5 | 14.2 | 13.9 | 12.7 | 11.5 | 10.1 | 9.3 | 8.4 | 7.8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1996.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1996.

나. 연령계층별 인구분포

연령계층별 인구분포를 보면 1995년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74.9%, 전남 79.3%, 광주·전남은 77.7%로 전국 76.8%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연령인 25~54세 인구비중은 광주·전남 40.3%로 전국 평균 45.0%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 25~54세가 38.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II-2〉 연령계층별 인구분포(1995)

(단위 : 명, %)

| | 전 국 | 광주·전남 | 광 주 | 전 남 |
|--------|---------------|--------------|--------------|--------------|
| 전 체 | 44,551(100.0) | 775(22.3) | 1,287(100.0) | 2,187(100.0) |
| 0~14세 | 10,341(23.2) | 706(20.3) | 323(25.1) | 452(20.7) |
| 15~24세 | 7,991(17.9) | 1,400(40.3) | 260(20.2) | 446(20.4) |
| 25~54세 | 20,060(45.0) | 317(9.1) | 565(43.9) | 835(38.2) |
| 55~64세 | 3,467(7.8) | 274(7.9) | 76(5.9) | 241(11.0) |
| 65세 이상 | 2,692(6.0) | | 63(4.9) | 211(9.7) |
| 노령화지수 | 26.0 | 35.4 | 19.5 | 46.7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전국적으로 노동력이 노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광주·전남은 전국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령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왔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를 보면 1975년 전국 8.9에 비해 광주·전남은 10.4로 1.5포인트 높았으나 1980년 1.9포인트, 1985년 2.7포인트로 격차가 서서히 확대되다가 1990년 5.2포인트, 1995년에는 9.4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수가 46.7로 전국 26.0보다 20.7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다.

〈표 II-3〉 노령화지수 추이

| | 전 국 | 광주·전남 |
|------|------|-------|
| 1975 | 8.9 | 10.4 |
| 1980 | 11.2 | 13.1 |
| 1985 | 14.2 | 16.9 |
| 1990 | 19.4 | 24.6 |
| 1995 | 26.0 | 35.4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다. 성별 인구구성

광주·전남의 성별 인구구성은 남녀 각각 49.6%, 50.4%로 전국과 큰 차이 없이 여성의 비중이 0.6%포인트 높다. 광주·전남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통학연령인 15~24세 비중이 광주·전남 모두 전국평균 이상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 지역에서 졸업한 후 많은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중심노동력인 25~54세는 광주의 경우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남의 경우 남자가 3.1%포인트, 여자는 3.7%포인트 낮다. 전남 취업자 중 상당수가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으로 출퇴근하므로 광주·전남을 합하여 보면 전국보다 남녀 각각 2.3%포인트, 2.4%포인트 낮다. 이것은 이

지역의 취업기회가 적음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55~65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남녀 모두 전국보다 비중이 높는데, 상술했듯이 광주는 평균 이하임에 반해 전남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표 II-4〉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95)

(단위 : 명, %)

| | 전 국 | | 광주·전남 | | 광 주 | | 전 남 |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0~14세 | 12.2 | 11.0 | 11.5 | 10.7 | 13.1 | 12.0 | 10.6 | 10.0 |
| 15~24세 | 9.2 | 8.7 | 10.7 | 9.7 | 10.3 | 10.0 | 10.9 | 9.5 |
| 25~54세 | 22.9 | 22.1 | 20.6 | 19.7 | 22.0 | 22.0 | 19.8 | 18.4 |
| 55~64세 | 3.7 | 4.1 | 4.1 | 5.0 | 2.7 | 3.2 | 4.9 | 6.1 |
| 65세 이상 | 2.2 | 3.8 | 2.9 | 5.0 | 1.6 | 3.3 | 3.7 | 6.1 |
| 성별 계 | 50.2 | 49.8 | 49.6 | 50.4 | 49.9 | 50.1 | 49.8 | 50.2 |
| 전 체 | 44,551(100.0) | | 3,474(100.0) | | 1,287(100.0) | | 2,187(100.0)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이상의 광주·전남 인구변동과 구조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지역은 공업화의 지연으로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결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계속 하락하여 왔다. 둘째,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의 정도가 높고, 그 속도 또한 최근 급속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그렇다. 셋째, 통학연령인 15~24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이 지역에서 교육받은 노동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노동력의 성별 구성에서는 다른 지역과 뚜렷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

2. 경제활동인구

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광주·전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수준과 비슷하지만 전국에 비해 느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전국이 1991년 60.6%에서 1996년 62.0%로 1.4%포인트 상승하였고, 광주·전남은 61.7%에서 62.1%로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에서 남녀가 각각 1.2%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주·전남은 남자가 1.5%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자는 0.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구분해서 보자. 동 기간 광주는 남녀 각각 4.5%포인트, 0.4%포인트씩 상승한 반면, 전남은 남녀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하였다. 이것은 전남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에 의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령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5〉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1991~96)

| | 전 국 | | | 광주·전남 | | | 광 주 | | | 전 남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 1991 | 60.6 | 74.9 | 47.3 | 61.7 | 72.6 | 51.3 | 54.7 | 65.8 | 44.3 | 64.9 | 75.7 | 54.6 |
| 1992 | 60.9 | 75.5 | 47.3 | 62.0 | 73.2 | 51.4 | 54.9 | 67.2 | 43.5 | 65.5 | 76.1 | 55.3 |
| 1993 | 61.1 | 76.0 | 47.2 | 60.8 | 72.7 | 49.6 | 54.8 | 68.9 | 41.9 | 63.8 | 74.5 | 53.6 |
| 1994 | 61.7 | 76.4 | 47.9 | 61.7 | 73.3 | 50.6 | 55.9 | 69.3 | 43.4 | 64.7 | 75.4 | 54.4 |
| 1995 | 62.0 | 76.5 | 48.3 | 61.8 | 73.7 | 50.5 | 56.7 | 70.5 | 43.9 | 64.6 | 75.5 | 54.1 |
| 1996 | 62.0 | 76.1 | 48.7 | 62.1 | 74.1 | 50.7 | 57.1 | 70.3 | 44.7 | 65.0 | 76.2 | 54.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나.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광주·전남 지역의 1996년 15세 이상 인구는 2,579천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1,602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2.1%이다. 이 수치는 전국의 62.0%와 거의 비슷하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는 74.1%로 전국 76.1%보다 약간 낮고, 여자는 50.7%로 전국 48.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을 구분해서 보면 광주의 경우 57.1%로 전국 62.0%, 6대 도시 61.6%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를 통하여 알아보자.

〈표 II-6〉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1996)

(단위 : 천명, %)

|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 | | | |
|-------|--------------|--------------|------|--------|------|-------|------|
| |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인 구 | 참가율 | 인 구 | 참가율 | 인 구 | 참가율 |
| 전 국 | 34,182 | 21,188 | 62.0 | 12,620 | 76.1 | 8,568 | 48.7 |
| 6대도시 | 16,345 | 10,065 | 61.6 | 6,023 | 75.8 | 4,041 | 48.1 |
| 광 주 | 936 | 534 | 57.1 | 317 | 70.3 | 217 | 44.7 |
| 전 남 | 1,643 | 1,068 | 65.0 | 615 | 76.2 | 453 | 54.2 |
| 광주·전남 | 2,579 | 1,602 | 62.1 | 932 | 74.1 | 670 | 50.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광주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의 비중이 아주 높다. 남자의 경우 전국 59.0%, 6대 도시 64.0%로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통학의 비중이 높지만 광주는 69.4%로 6대 도시 중 가장 높다.⁵⁾ 여자의 경우는 통학의 비중이 남자보다 작지만 전국 22.0%, 6대 도시 23.4%보다 현저히 높은 31.1%를 보여준다.⁶⁾ 즉 광주는 산업화가 지연됨에 따라 타도시에 비해 노동수요가

5) 다른 도시들은 서울 62.8%, 부산 60.1%, 대구 68.4%, 인천 67.0%, 대전 66.7%이다.

적으므로 경제활동인구는 적은 반면, 인재를 양성하여 타지역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7〉 비경제활동의 사유(남자 : 1996)

(단위 : 천명, %)

| | 전 체 | | 통 학 | | 가 사 | | 기 타 | |
|-------|-------|-------|-------|------|-----|------|-------|------|
|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 전 국 | 3,969 | 100.0 | 2,343 | 59.0 | 516 | 13.0 | 1,110 | 28.0 |
| 6대도시 | 1,927 | 100.0 | 1,234 | 64.0 | 118 | 6.1 | 575 | 29.8 |
| 광 주 | 134 | 100.0 | 93 | 69.4 | 25 | 18.7 | 16 | 11.9 |
| 전 남 | 192 | 100.0 | 104 | 54.2 | 45 | 23.4 | 43 | 22.4 |
| 광주·전남 | 326 | 100.0 | 197 | 60.4 | 70 | 21.5 | 59 | 18.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표 II-8〉 비경제활동의 사유(여자 : 1996)

(단위 : 천명, %)

| | 전 체 | | 통 학 | | 가 사 | | 기 타 | |
|-------|-------|-------|-------|------|-------|------|-----|------|
|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인 원 | 구성비 |
| 전 국 | 9,025 | 100.0 | 1,981 | 22.0 | 6,148 | 68.1 | 896 | 9.9 |
| 6대도시 | 4,353 | 100.0 | 1,017 | 23.4 | 2,996 | 68.8 | 340 | 7.8 |
| 광 주 | 267 | 100.0 | 83 | 31.1 | 171 | 64.0 | 13 | 4.9 |
| 전 남 | 383 | 100.0 | 90 | 23.5 | 251 | 65.5 | 42 | 11.0 |
| 광주·전남 | 650 | 100.0 | 173 | 26.6 | 422 | 64.9 | 55 | 8.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주·전남 모두 남자의 경우 가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남의 농촌 지역이 광범위한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광주도 1987년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농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다른 도시는 서울 22.5%, 부산 23.5%, 대구 25.5%, 인천 19.7%, 대전 24.9%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높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는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광주 171천 명, 전남 251천 명의 여성이 가사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4.9%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기혼여성이다. 여성의 가사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광주·전남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기회가 주어지고, 여성의 임금이 상승하며, 탁아시설 등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정비된다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흡수하여 활용가능한 부분이다.

3. 기혼여성 노동력의 성격

가. 인적 속성

여기서는 기혼여성 인력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 225명에 대해 행해진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조사는 1997년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주시 북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⁷⁾ 설문응답자의 인적 속성에 대해 알아보면 연령분포는 <표 II-9>와 같이 20대 7.4%, 30대 58.7%, 40대 26.2%, 50대 이상 7.6%이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 9.5%, 고졸 53.6%, 전문대졸 12.3%, 대졸 이상 24.5%였다.

<표 II-9> 설문응답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

| | 21~25세 | 26~30세 | 31~35세 | 36~40세 | 41~45세 | 46~50세 | 51~55세 | 55세이상 |
|-----|--------|--------|--------|--------|--------|--------|--------|-------|
| 인 원 | 2 | 15 | 51 | 81 | 36 | 23 | 11 | 6 |
| 구성비 | (0.7) | (6.7) | (22.7) | (36.0) | (16.0) | (10.2) | (4.9) | (2.7) |

7) 이 조사는 홍성우 외(미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조사대상 지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표본이 광주·전남 기혼여성을 대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료의 제약상 사용한다.

나. 취업의사

응답자 216명 중 51.9%인 112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기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이들 인력을 노동시장에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⁸⁾ 42.5%로 가장 많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28.5%, '자아실현을 위해' 25.6%, 기타 3.4%였다.

취업의 형태로는 응답자 185명 중 70.3%에 해당하는 130명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음으로써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겠지만 노동공급측에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육아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간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24.5%, '근무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20.9%, '적성에 맞는 일이 없어서' 20.4%,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표 II-10〉 시간제를 희망한다면 그 이유

(단위: 명, %)

| 이 유 | 응답자수 및 비율 | |
|----------------------------------|-----------|-------|
| | 응답자수 | 비율 |
| 전 체 | 203 | 100.0 |
| 자녀양육 및 학업지도가 어려워서 | 116 | 57.1 |
|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상실하므로 다른 일과 같이 하려고 | 56 | 27.6 |
| 정규직이 갖는 책임이나 부담 때문에 | 12 | 5.9 |
| 기 타 | 10 | 4.9 |
| | 9 | 4.4 |

8) 경제적인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40.8%, '생활비 부족' 18.5%, '여가활동비용 부담' 15.2%, '저축을 위하여' 13.0%로 나타났다.

9)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서 시간제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정규직 구직 불가'가 27.0%이지만 '자유로운 시간 추구'도 30.1%로 높다(김병조·김순영(1996)).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논의는 Tilly(1996) 참조.

19.9%로 나타나 취업희망자들이 시간제 근무마저도 육아 때문에 곤란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28.4%는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정부에서 탁아소를 설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 시간제 근로 활용방안

위에서 보았듯이 기혼여성은 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고, 최근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급측에서 희망하는 시간제 근로의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첫째, 하루의 근로시간으로는 4~6시간 희망자가 전체의 72.7%를 차지하였다. 일주일 근로시간으로는 26~30시간이 34.8%를 차지하였고, 25시간 이하 25.4%, 31~35시간 21.9%, 36~44시간 13.9%, 45~60% 4.0%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규직의 근로시간 44시간보다 10시간 이하의 적은 근로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II-11〉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

| 시간 | 1 | 2 | 3 | 4 | 5 | 6 | 7 | 8 | 10 | 전체 |
|-----|-------|-------|-------|--------|--------|--------|-------|--------|-------|---------|
| 인원수 | 1 | 5 | 14 | 37 | 68 | 44 | 12 | 22 | 2 | 205 |
| (%) | (0.5) | (2.4) | (6.8) | (18.0) | (33.2) | (21.5) | (5.9) | (10.7) | (1.0) | (100.0) |

둘째, 기혼여성의 시간제 근무는 가사병행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출퇴근 시간대에 의해 근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희망하는 출근시간은 9시와 10시가 가장 많았고, 희망하는 퇴근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었다. 이러한 출퇴근 시간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이 나왔다.

셋째, 시간제로 일할 경우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유통업, 금융기관,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력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졸, 전문대

〈표 II-12〉 시간제 근로시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

(단위 : %)

| 출근 시간대 | | 퇴근 시간대 | |
|--------|-------|--------|-------|
| 9시 이전 | 6.9 | 13시 이전 | 6.9 |
| 9시 | 35.3 | 13시 | 5.0 |
| 10시 | 40.2 | 14시 | 10.4 |
| 11시 | 4.9 | 15시 | 13.9 |
| 12시 | 1.0 | 16시 | 19.3 |
| 13시 | 5.4 | 17시 | 32.7 |
| 14시 | 5.4 | 18시 | 10.4 |
| 14시 이후 | 1.0 | 18시 이후 | 1.5 |
| 전 체 | 100.0 | 전 체 | 100.0 |

줄은 유통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 선호도는 시간제에 대한 수요 측면의 요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최근 활발하게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업종은 바로 유통업, 금융업, 병원 등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당 임금으로 받기 원하는 금액은 3,000원이 가장 많았고¹⁰⁾, 다음으로는 5,000원이 많았다. 요구임금은 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표 II-13〉 시간제 근무 희망업종

(단위 : 명)

| | 중 졸 | 고 졸 | 전문대졸 | 4년제 대졸 이상 | 전 체 |
|--------|-----|-----|------|-----------|-----|
| 제조업 | 3 | 16 | 2 | 2 | 23 |
| 유통업 | 7 | 32 | 6 | 9 | 54 |
| 병원 | 0 | 6 | 2 | 5 | 13 |
| 금융기관 | 0 | 20 | 5 | 14 | 39 |
| 요식업 | 1 | 8 | 0 | 1 | 10 |
| 숙박업 | 0 | 0 | 0 | 0 | 0 |
| 기타서비스업 | 4 | 9 | 5 | 5 | 23 |
| 기타 | 0 | 6 | 5 | 12 | 23 |
| 전 체 | 15 | 97 | 25 | 48 | 185 |

10) 설문조사지에 적혀 있는 '현재 광주시내 유통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500~3,000원 정도입니다'라는 참고사항이 응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3,000원은 이 금액범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여주었는데 예상대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은 임금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임금은 현재 광주 지역 유통업 종사 시간제 근로자 임금이 2,000~2,5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금액이다.

〈표 II-14〉 시간제 근무자의 시간당 희망임금

(단위 : 명)

| | 2,000원 이하 | 2,500원 | 3,000원 | 3,500원 | 4,000원 | 5,000원 | 5,000원 초과 | 전 체 |
|------|-----------|--------|--------|--------|--------|--------|-----------|-----|
| 중졸이하 | 3 | 0 | 11 | 0 | 0 | 0 | 1 | 15 |
| 고졸 | 9 | 12 | 53 | 0 | 5 | 17 | 3 | 99 |
| 전문대졸 | 5 | 1 | 10 | 1 | 2 | 5 | 1 | 25 |
| 대졸이상 | 2 | 2 | 19 | 1 | 2 | 13 | 7 | 46 |
| 전 체 | 19 | 15 | 93 | 2 | 9 | 35 | 12 | 185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제 취업을 하면 월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므로 시간당 임금도 중요하지만 월임금도 큰 의미가 있다.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 최소한 받고 싶은 월임금은 분포가 광범위하지만 40만~5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만~70만원, 80만~100만 원이었다. 현재 광주 지역 시간제 근로자의 약 60%가 월 50만 원 이상을 소득으로 획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금액은 상당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5〉 시간제 근로자의 최소희망 월임금

(단위 : 명)

| | 30만원 이하 | 40~50만원 | 60~70만원 | 80~100만원 | 100만원 초과 | 전 체 |
|------|---------|---------|---------|----------|----------|-----|
| 중졸이하 | 3 | 6 | 2 | 3 | 0 | 14 |
| 고졸 | 11 | 41 | 20 | 24 | 6 | 102 |
| 전문대졸 | 2 | 8 | 4 | 10 | 0 | 24 |
| 대졸이상 | 1 | 19 | 10 | 17 | 2 | 49 |
| 전 체 | 17 | 74 | 40 | 37 | 8 | 189 |

기혼여성 인력활용을 위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육아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된다.

Ⅲ. 光州·全南 勞働力の 質

1. 학교 교육

노동력은 단순히 노동자의 수 또는 노동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인적자본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투자대상의 소득상승분 전체를 생산성 향상과 일치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 시킴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진학률이 상승하여 평균 교육년수가 1975년 6.6년에서 1995년에는 10.1년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양질화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¹¹⁾ 이하에서는 학교 교육과 현장훈련 현황을 검토하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설문자료를 통하여 광주·전남 노동력의 질에 대해 알아본다.

가. 각급 학교의 학생수

광주·전남의 각급 학교 재학생수를 인구대비로 볼 때 산업인력의 중심 공급원인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졸 노동력의 공급은 풍부하고 대학 이상은 전국보다 낮다. <표 Ⅲ-1>은 1997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수이다.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이고, 광주·전남 각급 학교 재학생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등학교 8.4%, 전문대학 10.2%, 대학(교) 6.4%, 대학원 5.0%, 전체 평균은 7.8%이다.

11) 1963~82년 국민소득 증가율 7.61%에서 노동력·자본투입량 증가율 4.89%를 공제하면 3.11%로 교육 및 기술진보에 기인한다(배무기, 1991, 174쪽). 1955~90년 국내총생산의 인적자본투자 탄력성은 0.399로 나타났다(Hak K. Pyo, 1995, 236쪽).

〈표 III-1〉 재학생 현황(1997)

(단위 : 천명, %)

| | 전 체 | 고등학교 | |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
| | | 소 계 | 일반계 | 실업계 | | | |
| 전 국 | 5,129(100) | 2,337(100) | 1,377 | 960 | 728(100) | 1,911(100) | 153(100) |
| 광주·전남 | 400(7.8) | 196(8.4) | 115 | 81 | 75(10.2) | 122(6.4) | 8(5.0) |
| 광 주 | 204(4.0) | 78(3.3) | 52 | 26 | 40(5.5) | 79(4.1) | 6(4.1) |
| 전 남 | 197(3.8) | 118(5.0) | 63 | 54 | 35(4.8) | 43(2.2) | 1(0.9)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그러나 광주·전남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재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신규학졸 노동공급이 풍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광주·전남의 고등학교 졸업자 59,417명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자는 39,346명으로 66.2%에 이룸으로써 전국평균 60.1%보다 높으며, 전문대학의 경우도 졸업자 17,672명 중 1,726명이 진학하여 진학률이 9.8%로 전국평균 8.3%를 상회한다. 그래서 이들 학교 졸업생 중 취업가능한 인원의 비율을 알아보아야 한다. 졸업후 진로는 진학, 취업, 무직, 군입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졸업자 중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노동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전남 고졸 및 전문대졸 미진학자수는 36,017명으로 전국 미진학자수 429,117명의 8.4%이고 15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를 상회하고 있어서 광주·전남은 이들의 인력공급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II-2〉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진학률(1997)

(단위 : 명, %)

| | 고등학교 | | | 전문대학 | | | 전체 미진학자 |
|-------|---------|---------|------|---------|--------|------|--------------|
| | 졸업자 | 진학자 | 진학률 | 졸업자 | 진학자 | 진학률 | |
| 전 국 | 671,614 | 403,791 | 60.1 | 175,965 | 14,671 | 8.3 | 429,117(100) |
| 광주·전남 | 59,417 | 39,346 | 66.2 | 17,672 | 1,726 | 9.8 | 36,017(8.4) |
| 광 주 | 22,359 | 16,539 | 74.0 | 10,841 | 1,128 | 10.4 | 15,533(3.6) |
| 전 남 | 37,058 | 22,807 | 61.5 | 6,831 | 598 | 8.8 | 20,484(4.8)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나. 분야별 학생수

고등학교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해 보면 졸업후 바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비중이 낮다.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실업계 학생의 비중은 광주·전남이 41.1%로 전국평균과 비슷하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희망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계의 비중은 전국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 비율은 95.0%이고, 실업계도 47.4%에 달한다. 이것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을 전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실제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국평균 일반고 81.4%, 실업고 29.2%로 나머지 미진학자가 고졸 노동력 공급원이다. 특히 이들 중 일반계 고졸자는 취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업계 고졸보다 취업에서 불리하여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보다는 많은 경우 중소기업의 공급원이 된다.¹²⁾ 광주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99.4%가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진학한 비율은 94.4%이었고, 전남의 경우 94.6% 희망에 88.7%만이 진학하였다.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과정별 학생수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분야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광주·전남은 상업계 43.9%, 공업계 41.8%, 농림계 6.8%이다. 전국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상업계는 7.8%로 비슷하고, 공업계가 9.4%로 1.5%포인트 높으며, 절대수치가 작지만 농림계, 수산 및 해양계, 가사실업계가 높다.

이제 실업계 학생수의 37.4%, 47.5%를 차지하는 공업계와 상업계의 과정별 구성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해 보자. 첫째,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과정의 비중이 높아서 양질의 산업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공업계

12) 홍성우(1991).

〈표 III-3〉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단위 : 명, %)

| | 전 국 | | 광주·전남 | | 광 주 | | 전 남 | |
|----------|---------|-----|--------|------|--------|------|--------|------|
|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전 체 | 960,037 | 100 | 80,638 | 8.4 | 26,230 | 2.7 | 54,408 | 5.7 |
| 농림계 | 34,632 | 100 | 5,471 | 15.8 | 872 | 2.5 | 4,599 | 13.3 |
| 공업계 | 358,614 | 100 | 33,688 | 9.4 | 12,230 | 3.4 | 21,458 | 6.0 |
| 상업계 | 456,327 | 100 | 35,370 | 7.8 | 11,705 | 2.6 | 23,665 | 5.2 |
| 수산 및 해양계 | 7,283 | 100 | 974 | 13.4 | - | - | 974 | 13.4 |
| 가사실업계 | 6,250 | 100 | 1,184 | 18.9 | 1,184 | 18.9 | - | - |
| 인문계 | 95,420 | 100 | 3,951 | 4.1 | 239 | 0.3 | 3,712 | 3.9 |
| 예능계 | 1,511 | 100 | - | - | - | - |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를 크게 중화학공업계와 경공업계로 나누어 보면 각각 9.4%,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속, 전기, 기계, 건축, 토목 등이 모두 평균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업계도 사무관련학과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둘째, 절대수는 많지 않으나 화학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광주·전남은 제조업 중에서 화학공업부문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석유화학은 장치산업으로 화공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다.

셋째, 실업고등학교 과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정의 수가 적어서 필요한 과정이 부족하다. 중화학공업계에서는 전국 51개 과정 중 20개, 경공업계에서도 20개 중 5개 과정, 상업계는 18개 과정 중 1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 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과정은 공업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통신, 조선, 섬유, 식품공업, 디자인관련 과정이고, 상업계에서는 외국어관련 과정이다. 이것은 이 지역 제조업체의 산업인력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성장산업 분야인 컴퓨터, 통신, 유통 등의 과정은 신규개설 및 과정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 Ⅲ-4〉 공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단위 : 명, %)

| | 전 국 | | 광주·전남 | | 광 주 | | 전 남 | |
|----------|-----------|-----|----------|-------|----------|------|----------|------|
|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전 체 | 358,614 | 100 | 33,688 | 9.4 | 12,230 | 3.4 | 21,458 | 6.0 |
| 〈중화학공업계〉 | (296,122) | 100 | (27,922) | 9.4 | (10,086) | 3.4 | (17,836) | 6.0 |
| 금속과 | 6,204 | 100 | 1,132 | 18.2 | 563 | 9.1 | 569 | 9.2 |
| 기계과 | 59,459 | 100 | 6,141 | 10.3 | 1,630 | 2.7 | 4,511 | 7.6 |
| 배관용접과 | 1,887 | 100 | 544 | 28.8 | - | - | 544 | 28.8 |
| 자동차과 | 18,515 | 100 | 1,978 | 10.7 | 210 | 1.1 | 1,768 | 9.5 |
| 전기과 | 12,897 | 100 | 4,106 | 31.8 | 1,731 | 13.4 | 2,375 | 18.4 |
| 전자과 | 59,590 | 100 | 4,297 | 7.2 | 1,524 | 2.6 | 2,773 | 4.7 |
| 전자통신과 | 5,873 | 100 | 210 | 3.6 | 210 | 3.6 | - | - |
| 정밀기계과 | 16,071 | 100 | 1,846 | 11.5 | 1,204 | 7.5 | 642 | 4.0 |
| 화공과 | 11,449 | 100 | 1,547 | 13.5 | 666 | 5.8 | 881 | 7.7 |
| 화학계기과 | 474 | 100 | 474 | 100.0 | 474 | 100 | - | - |
| 화학공정과 | 473 | 100 | 473 | 100.0 | 473 | 100 | - | - |
| 화학기계과 | 460 | 100 | 460 | 100.0 | 460 | 100 | - | - |
| 전자계산기과 | 20,471 | 100 | 1,742 | 8.5 | 315 | 1.5 | 1,427 | 7.0 |
| 정보통신과 | 7,716 | 100 | 1,189 | 15.4 | - | - | 1,189 | 15.4 |
| 환경공업과 | 1,635 | 100 | 209 | 12.8 | 209 | 12.8 | - | - |
| 전자기계과 | 12,415 | 100 | 441 | 3.6 | 213 | 1.7 | 228 | 1.8 |
| 금형과 | 2,006 | 100 | 204 | 10.2 | 204 | 10.2 | - | - |
| 증장비과 | 1,273 | 100 | 376 | 29.5 | - | - | 376 | 29.5 |
| 산업화공과 | 271 | 100 | 271 | 100.0 | - | - | 271 | 100 |
| 컴퓨터그래픽과 | 282 | 100 | 282 | 100.0 | - | - | 282 | 100 |
| 그외 31개과 | 56,701 | 100 | - | - | - | - | - | - |
| 〈경공업계〉 | (62,492) | 100 | (5,766) | 9.2 | (2,144) | 3.4 | (3,622) | 5.8 |
| 건축과 | 21,992 | 100 | 2,114 | 9.6 | 1,040 | 4.7 | 1,074 | 4.9 |
| 토목과 | 18,648 | 100 | 2,370 | 12.7 | 599 | 3.2 | 1,771 | 9.5 |
| 디자인과 | 8,904 | 100 | 848 | 9.5 | 505 | 5.7 | 343 | 3.9 |
| 지적과 | 260 | 100 | 96 | 36.9 | - | - | 96 | 36.9 |
| 출판광고과 | 338 | 100 | 338 | 100 | - | - | 338 | 100 |
| 그외 15개과 | 12,350 | 100 | - | - | - | - |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표 III-5〉 상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수(1997)

(단위 : 명, %)

| | 전 국 | | 광주·전남 | | 광 주 | | 전 남 | |
|---------|---------|-----|--------|------|--------|-----|--------|------|
|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전 체 | 456,327 | 100 | 35,370 | 7.8 | 11,705 | 2.6 | 23,665 | 5.2 |
| 상업과 | 185,521 | 100 | 14,518 | 7.8 | 4,824 | 2.6 | 9,694 | 5.2 |
| 정보처리과 | 174,126 | 100 | 12,976 | 7.5 | 4,227 | 2.4 | 8,749 | 5.0 |
| 회계과 | 11,378 | 100 | 209 | 1.8 | - | - | 209 | 1.8 |
| 비서과 | 1,716 | 100 | 267 | 15.6 | - | - | 267 | 15.6 |
| 상업디자인과 | 9,957 | 100 | 1,152 | 11.6 | - | - | 1,152 | 11.6 |
| 사무자동화과 | 37,962 | 100 | 4,436 | 11.7 | 2,418 | 6.4 | 2,018 | 5.3 |
| 관광경영과 | 5,857 | 100 | 813 | 13.9 | 236 | 4.0 | 577 | 9.9 |
| 유통관리과 | 4,676 | 100 | 620 | 13.3 | - | - | 620 | 13.3 |
| 경영정보과 | 11,626 | 100 | 185 | 1.6 | - | - | 185 | 1.6 |
| 그래픽디자인과 | 194 | 100 | 194 | 100 | - | - | 194 | 100 |
| 그외 8개과 | 13,314 | 100 | - | - | - | - |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다. 학교 교육의 질

학교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량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반 교육시설 현황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 전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강의실 면적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표 III-6〉이 보여주듯이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는 광주·전남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PC 보유대수가 적고 실험실습 기자재가 낙후되어 있으며 실습실 면적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¹³⁾ 즉 교육여건은 타지역에 비해 결코 양호한 편이 못 된다.

그러나 배출되는 인력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국가 기술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표 III-7〉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전남은 전

13) 윤석구(1990).

국평균 66.0%보다 훨씬 높은 80.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업계, 상업계에 국한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표 Ⅲ-6〉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현황

| | 학생수 | 도서관수 | 장 서 (천권) | | | 학술잡지(권) | | | 예산액(백만원) | |
|-------|-------|------|----------|--------|--------|---------|---------|------|----------|------|
| | | | 동양서 | 서양서 | 1인당(권) | 국내 | 국외 | 1인당 | 총액 | 1인당 |
| 전 국 | 2,792 | 400 | 38,140 | 14,734 | 18.9 | 114,228 | 107,761 | 0.08 | 138,690 | 0.05 |
| 광주·전남 | 205 | 37 | 2,532 | 880 | 16.4 | 6,208 | 4,774 | 0.05 | 7,766 | 0.04 |
| 광 주 | 125 | 17 | 1,605 | 654 | 18.1 | 4,513 | 3,558 | 0.06 | 5,015 | 0.04 |
| 전 남 | 79 | 20 | 927 | 226 | 14.6 | 1,695 | 1,216 | 0.04 | 2,751 | 0.03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표 Ⅲ-7〉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단위 : %)

| | 전 국 | 광주·전남 | 광 주 | 전 남 |
|--------|------|-------|------|------|
| 전 체 | 66.0 | 80.2 | 87.3 | 77.0 |
| 농림계 | 72.8 | 80.9 | 88.5 | 79.4 |
| 공업계 | 93.3 | 97.4 | 98.2 | 97.0 |
| 상업계 | 60.3 | 75.1 | 85.2 | 70.6 |
| 수산및해양계 | 75.0 | 84.5 | - | 84.5 |
| 가사실업계 | 15.9 | 22.7 | 22.7 | - |
| 인문계 | 4.5 | 16.3 | - | 16.3 |
| 예능계 | 97.1 | - | - | -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2. 직업훈련

가. 현장훈련

학교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의 훈련가

능성을 높여주지만 곧바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제공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작업처리능력을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습득해 오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광주 지역 대기업 관리자의 12.2%, 생산직 근로자의 29.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8〉 학교 교육에 의한 기본적인 작업처리능력 습득 정도

(단위 : %)

| | 관리자의 응답 | 근로자의 응답 |
|--------------|---------|---------|
| 훌륭하게 습득 | 0.0 | 5.2 |
| 비교적 충분히 습득 | 12.2 | 23.7 |
| 보통 | 19.5 | 21.8 |
| 부족한 편 | 58.5 | 27.9 |
| 전혀 습득해 오지 않음 | 7.3 | 19.4 |
| 무응답 | 2.4 | 2.0 |

자료 : 홍성우(1994).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현장훈련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훈련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적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었는지 측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이직률 하락, 근속년수의 연장 등으로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을 것으로¹⁴⁾ 생각된다.

현장훈련에 의한 이 지역 근로자의 질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근속년수를 비교해 보자. 근속년수가 길수록 현장훈련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근로자들의 근속년수는 전산업에서 각각 4.7년, 5.2년으로 전국평균 4.0년보다 각각 0.7년, 1.2년이 길다. 제조업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각각 3.6년, 4.8년으로 전국평균 3.5년을 상회하고 있어서 이 지역 근로자들은 현장훈련을 통해 다른 지역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력의 질이 더 많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 배무기(1991), 182쪽.

〈표 Ⅲ-9〉 근속년수

(단위 : 년)

| | 전 산업 | | | 제조업 | | |
|-----|------|-----|-----|-----|-----|-----|
| | 계 | 남 자 | 여 자 | 계 | 남 자 | 여 자 |
| 전 국 | 4.0 | 4.7 | 2.7 | 3.5 | 4.3 | 2.2 |
| 광 주 | 4.7 | 5.2 | 3.1 | 3.6 | 4.0 | 2.4 |
| 전 남 | 5.2 | 5.6 | 3.0 | 4.8 | 5.3 | 2.7 |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91.

나. 직업훈련

학교 교육은 일반적인 훈련으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능까지 제공하지 못한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은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⁵⁾ 특히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 기술혁신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주기가 빨라지는 현대에는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도 필수적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리자의 58.5%,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중 52%가 직업훈련이 크게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고 있다.¹⁶⁾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체 훈련기관수가 1995년 현재 44개로 전국의 10.0%를 차지함으로써 15세 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7.5%보다 높다. 훈련인원도 24,229명으로 전국 217,660명의 11.1%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이 지역은 직업훈련을 통해 타지역보다 더 많은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론에 치중된 학교 교육과 달리 직업훈련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기의 비율을 약 30 대 70으로 편성되어 있다.

16) 홍성우(1991).

〈표 Ⅲ-10〉 직업훈련기관(1995)

(단위 : 개)

| | 전체 | 공공훈련 | | | | | | 사업내 훈련 | 인정 훈련 |
|-------|-----|------|------------|----------|-----------|----------|------------|-----------|----------|
| | | 소계 | 산업인 력공단 | 정부 기관 | 장애인 공단 | 대한 상의 | 지방자 치단체 | | |
| 전국 | 441 | 91 | 38 | 37 | 1 | 6 | 9 | 219 | 131 |
| 광주·전남 | 44 | 10 | 4 | 5 | - | 1 | - | 19 | 15 |
| 광주 | 23 | 6 | 2 | 3 | - | 1 | - | 13 | 4 |
| 전남 | 21 | 4 | 2 | 2 | - | - | - | 6 | 11 |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6. 8.

〈표 Ⅲ-11〉 기능사 직업훈련실적(1995)

(단위 : 명)

| | 전체 | 공공훈련 | 사업내훈련 | 인정훈련 |
|-------|---------|--------|---------|--------|
| 전국 | 217,660 | 30,508 | 160,413 | 26,739 |
| 광주·전남 | 24,229 | 5,837 | 16,814 | 1,578 |

주 : 산업인력공단은 광주기능대, 목포기능대, 순천전문교, 전남전문교이고,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정부기관은 광주·장흥교도소 및 소년원이며, 목포·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서는 목포·순천교도소임.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6. 8.

한편 공단 직훈을 과정별로 보면 양성 2년 과정은 없으나 기능 수준이 높은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직무능력향상훈련 양성은 대부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광주·전남 지역 직업훈련은 타지역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인원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수료후 타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다. 광주 및 전남 직업훈련원 수료자들의 지역별 취업현황을 보면 1990년 659명 중 64%인 422명만이 이 지역에서 취업하였고 31.5%가 경인 지역, 3.5%가 영남 지역으로 유출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호남 출신으로, 1990년 광주 직훈훈련생의 출신 지역을 보면 404명 중 광주

120명, 전남 215명, 전북 51명이고 나머지 지역 출신은 18명에 불과하였다.¹⁷⁾

〈표 Ⅲ-12〉 직업훈련 모집 및 승인인원(1996)

| 기관별 | 과 정 별 | 전 국 | 광주·전남 | 광 주 | 전 남 |
|----------------|--------------------|------------|----------|--------|----------|
|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 기능장 과정(1년) | 440(6) | 40(2) | 40(2) | - |
| | 다기능기술자 과정 | 2,720(20) | 260(8) | 160(8) | 100(2) |
| | 양성 2년 과정(기능사 1급수준) | 405(15) | - | - | - |
| | 양성 1년 과정(기능사 2급수준) | | | | |
| | - 공과운영체제 | 6,120(36) | 660(15) | - | 660(15) |
| | - 직종운영체제 | 1,350(15) | 180(4) | - | 180(4) |
| | 양성 6월과정 | 210(7) | - | - | - |
| | 자격취득향상 과정(기능사 1급) | 30(1) | - | - | - |
| | 직무능력 향상훈련 | 13,500(14) | 1,420(8) | 380(7) | 1,040(7) |
| | 통신훈련 | 1,000(6) | 105(4) | 30(2) | 75(4) |
| 이동훈련 | 900(5) | - | - | - | |
| | 소 계 | 26,675 | 2,665 | 610 | 2,055 |
| 대한상공회의소 | | 2,100(26) | 300(6) | 300(6) | - |
| 장애인공단 | | 210(9) | - | - | - |
| 정부기관 | | 4,533(11) | | | |
| 지방자치단체 | | 3,029(11) | - | - | - |
| 사업내훈련 | | 190,475 | 25,499 | 18,938 | 6,561 |
| 인정훈련 | | 46,910 | 4,410 | 2,160 | 2,250 |

주 : ()안은 직종수입.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6. 8.

3.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

가. 자료의 성격

학교 교육과 현장훈련·직업훈련을 통하여 양성된 광주·전남 지역 생산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17) 김종재·박성수(1991).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¹⁸⁾ 이 조사는 필자가 1993년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광주시에 소재한 3개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1개의 수송용기계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인사 및 생산담당 간부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문응답자는 각각 41명, 459명이었다.

나. 훈련 가능성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의 업무처리능력은 양호한 편이다. 입사후 근로자의 업무숙달 속도에 대한 설문에서 관리자들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빠름’ 4.9%, ‘비교적 빠름’ 51.2%, ‘보통’ 29.3%, ‘느린 편’ 12.2%로 56.1%가 빠른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이나 부서이동 등에 의해 자신이 맡은 작업내용이 변화했을 때 근로자들은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에서 보듯이 관리자에 대한 설문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편’ 26.8%에 비해 ‘잘 적응하는 편’이 43.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들도 다수가 힘이 더 들어도 해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 III-14>에서와 같이 작업방법의 변화로 힘이 더 들 것이므로 거부하겠다고 한 근로자는 23.1%에 불과하였고, 43.6%는 수동적으로, 30.1%는 적극적으로 적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III-13> 작업내용 변화에 대한 적응성(관리자의 응답)

(단위 : %)

| 적응성 | 비율 |
|----------|------|
| 아주 잘 적응 | 0.0 |
| 잘 적응하는 편 | 43.9 |
| 보통 | 26.8 |
| 적응 못하는 편 | 26.8 |
| 전혀 적응 못함 | 0.0 |
| 무응답 | 2.4 |

18) 홍성우(1994).

〈표 Ⅲ-14〉 작업내용 변화에 대한 적응성(근로자의 응답)

(단위 : %)

| 적응성 | 비율 |
|-------------------------|------|
| 힘이 더 들 것이므로 거부하겠다 | 23.1 |
| 힘이 더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한다 | 43.6 |
| 힘이 더 들어도 회사의 일이니 열심히 한다 | 30.1 |
| 무응답 | 3.3 |

다. 작업에 대한 태도

훈련이 잘 되고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기업의 방침에 따라 협조적이며 책임감 있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제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 근로자의 근면성, 책임감, 협동심, 애사심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들 기업은 생산방식이 대부분 일관공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라인별 작업인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관리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지각과 조퇴 상황을 질문해 보았더니 ‘적은 편’ 36.6%, ‘거의 없다’ 24.4%에 비해 ‘빈번하다’로 답변한 비율은 7.3%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근태상황이 양호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관리자와 근로자의 응답이 다소 상이하지만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는 응답비율은 〈표 Ⅲ-15〉에서와 같이 관리자 12.2%, 근로자 2.6%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표 Ⅲ-16〉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관리자의 19.5%와 근로자의 1.7%만이 충실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15〉 근로자의 책임감

(단위 : %)

| | 관리자의 응답 | 근로자의 응답 |
|--------------|---------|---------|
| 아주 책임감이 있다 | 4.9 | 30.7 |
| 책임감이 있는 편이다 | 61.0 | 60.3 |
| 보통이다 | 17.1 | 4.6 |
|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다 | 12.2 | 2.2 |
| 아주 책임감이 없다 | 0.0 | 0.4 |
| 무응답 | 4.9 | 1.7 |

〈표 Ⅲ-16〉 근로자들의 충실성

(단위 : %)

| | 관리자의 응답 | 근로자의 응답 |
|-------------|---------|---------|
| 아주 충실하다 | 0.0 | 17.9 |
| 충실한 편이다 | 43.9 | 66.0 |
| 보통이다 | 34.1 | 12.6 |
| 충실하지 못한 편이다 | 19.5 | 1.3 |
| 아주 불충실하다 | 0.0 | 0.4 |
| 무응답 | 2.4 | 1.7 |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사의 방침에 협조적이며 다른 부서 근로자와의 협동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업무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해(예 : 적극적인 제안, 불량을 낮추기 위한 회사의 요구에 대한 태도 등) 협조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자도 비협조적이라는 답변은 소수였다. 〈표 Ⅲ-17〉에서 보듯이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관리자 12.2%, 근로자 4.0%에 불과하였다. 한편 관련부서 근로자와의 업무협조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은 관리자 설문 7.3%, 근로자 설문 3.3%에 불과하였다.

〈표 Ⅲ-17〉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사 방침에 대한 태도

(단위 : %)

| | 관리자의 응답 | 근로자의 응답 |
|-----------|---------|---------|
| 아주 협조적이다 | 0.0 | 14.4 |
| 협조적인 편이다 | 58.5 | 59.7 |
| 보통이다 | 26.8 | 20.3 |
| 비협조적이다 | 12.2 | 3.1 |
| 아주 비협조적이다 | 0.0 | 0.9 |
| 무응답 | 2.4 | 1.7 |

라. 생산성의 비교

지금까지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의 자질과 잠재적인 생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타지역 근로자의 생산성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광주·전남 근로자의 생산성을 타지역 근로자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나 물적생산성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은 동일한 제품, 동일한 제조공정, 동일한 기계설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관리자와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답변을 이용하였다. 〈표 Ⅲ-18〉에서 보여주듯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비슷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표 Ⅲ-18〉 타지역 근로자와 비교한 생산성

(단위 : %)

| | 관리자의 응답 | 근로자의 응답 |
|-------|---------|---------|
| 아주 높다 | 0.0 | 7.8 |
| 높은 편 | 31.7 | 19.0 |
| 비슷한 편 | 36.6 | 59.5 |
| 낮은 편 | 26.8 | 9.6 |
| 아주 낮다 | 2.4 | 2.0 |
| 무응답 | 2.4 | 2.0 |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은 자질이나 잠재적 생산성에서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와 같이 관리자나 근로자 모두 타지역 근로자와 비교할 때 생산성이 비슷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하나의 해답으로 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관리자들의 34.1%가 '작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 26.8%가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 22.0%가 '문제가 없다',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0.0%로 답변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형식적인 협조성은 높지만 적극적인 협조성과 업무처리능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19〉 노무관리상 문제점

(단위 : %)

| 문 제 점 | 비 율 |
|--------------|------|
| 없음 | 22.0 |
|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음 | 0.0 |
| 작업에 성실하지 않음 | 34.1 |
| 업무처리능력 부족 | 26.8 |
| 기타 | 12.2 |
| 무응답 | 4.9 |

이상에서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여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료의 제약상 한계는 있지만 광주·전남 대기업 근로자들은 잠재적인 생산성이 높으나 실제로 뚜렷하게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작업에 더 적극성을 갖게 하고 현장훈련을 강화하여 업무처리능력을 제고시키며 효율적인 작업방법을 모색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IV. 光州·全南 地域 勞動市場의 就業構造

1. 산업별 취업자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가가치율이 높고 성장이 빠른 산업의 비중이 커진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재화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의 질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취업자로 본 한국의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똑같은 경로를 거쳐 온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어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은 선진국형이다.

광주·전남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첫째 특징은 이 지역이 산업화가 지연되어 산업구조면에서 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6년 현재 산업별 취업자는 서비스업 56.9%, 농림어업 30.5%, 광공업 12.5% 순으로 전국과 비교할 때 농림어업 비중이 아주 높고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다.

최근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1~96년간 농림어업은 전국 취업자가 661천 명인 4.9%포인트 감소한 반면, 광주·전남은 125천 명인 8.3%포인트 감소하여 전국 총감소 인원의 18.9%를 차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공업 취업자는 약 12%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주의 광공업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전남이 대신 증가한 결과이다. 광주는 도심에서 제조업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전남은 대불공단, 율촌공단 등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어 광주 및 타지역에서 이전된 공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 기간에 48.8%에서 56.9%로 8.1%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IV-1〉 산업별 취업자 구성 추이

(단위 : %)

| | 연도 | 농림어업 | 광공업 |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
| 전 국 | 1991 | 16.5 | 27.2 | 56.3 |
| | 1992 | 15.8 | 25.8 | 58.4 |
| | 1993 | 14.7 | 24.4 | 60.9 |
| | 1994 | 13.6 | 23.9 | 62.5 |
| | 1995 | 12.5 | 23.6 | 64.0 |
| | 1996 | 11.6 | 22.6 | 65.8 |
| 광주·전남 | 1991 | 38.8 | 12.4 | 48.8 |
| | 1992 | 36.8 | 12.1 | 51.1 |
| | 1993 | 35.2 | 11.8 | 53.1 |
| | 1994 | 33.8 | 12.6 | 53.5 |
| | 1995 | 31.8 | 13.4 | 54.8 |
| | 1996 | 30.5 | 12.5 | 56.9 |
| 광 주 | 1991 | 9.5 | 20.1 | 70.1 |
| | 1992 | 8.7 | 20.2 | 71.3 |
| | 1993 | 6.7 | 16.4 | 76.9 |
| | 1994 | 6.1 | 14.8 | 79.1 |
| | 1995 | 5.6 | 15.0 | 79.4 |
| | 1996 | 5.2 | 13.3 | 81.3 |
| 전 남 | 1991 | 50.0 | 9.4 | 40.6 |
| | 1992 | 48.0 | 8.8 | 43.1 |
| | 1993 | 47.2 | 9.8 | 43.0 |
| | 1994 | 46.0 | 11.7 | 42.2 |
| | 1995 | 44.1 | 12.6 | 43.3 |
| | 1996 | 43.0 | 12.1 | 44.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산업별 취업자 구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역 취업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세사업장 취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취업자에서 5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를 뺀 수치를 영세사업장 취업자라고 간주하여 보면 광공업은 전국 38.9%, 광주·전남 45.8%, 서비스업은 전국 75.6%, 광주·

전남 79.9%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 산업화의 낙후와 유관한 것으로 농촌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노동력과 도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산된 상대적 과잉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의 형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⁹⁾

〈표 IV-2〉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취업자 비율

(단위 : 천명, %)

| | | 전산업 | 농림어업 | 광공업 | 서비스업 |
|-----------------|-------|--------|-------|-------|--------|
| 총취업자 (A) | 전 국 | 20,764 | 2,405 | 4,701 | 13,657 |
| | 광주·전남 | 1,578 | 482 | 197 | 898 |
| 5인 이상 취업자(B) | 전 국 | 6,236 | 34 | 2,870 | 3,332 |
| | 광주·전남 | 292 | 5 | 107 | 181 |
| A - B (C) | 전 국 | 14,528 | 2,371 | 1,831 | 10,325 |
| | 광주·전남 | 1,286 | 477 | 90 | 717 |
| C/A | 전 국 | 70.0 | 98.6 | 38.9 | 75.6 |
| | 광주·전남 | 81.5 | 99.0 | 45.8 | 79.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7.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대적인 고용관계인 고용-피고용 관계가 확대된다. 1960년 비농피고용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8.3%에 불과하였으나 소농 체제로 되어 있는 농업부문 취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는 50%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²⁰⁾ 광주·전남 지역 피고용자 비율은 1986년 30.7%, 1989년 33.8%, 1992년 38.0%로 고용-피고용 관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비농림어업에 국한해 보면 60.4%, 62.2%, 65.7%로 상승해 왔다.

19) 홍성우(1989).

20) 1994년 피고용자의 비중은 전산업에서 일본 81.1%, 미국 91.5%, 프랑스 88.3%, 대만 68.9% 등으로 한국 62.0%보다 높다(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표 IV-3〉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 | | | 전 체 | 광공업 | 서비스업 | 비농림어업 |
|------|-----------|------------|------|------|------|-------|
| 1986 | 전국 | 자영업주 | 31.9 | 10.6 | 32.3 | 25.1 |
| | | 무급가족종사자 | 16.9 | 3.0 | 8.3 | 6.6 |
| | | 상시고 일 고 | 42.5 | 78.9 | 47.8 | 58.2 |
| | | 일 고 | 8.7 | 7.5 | 11.5 | 10.2 |
| | 광주· 전남 | 자영업주 | 39.9 | 18.1 | 32.7 | 29.2 |
| | | 무급가족종사자 | 29.4 | 8.8 | 10.8 | 10.3 |
| | | 상시고 일 고 | 23.5 | 60.2 | 45.8 | 49.2 |
| | | 일 고 | 7.2 | 13.5 | 10.5 | 11.2 |
| 1989 | 전국 | 자영업주 | 30.2 | 10.0 | 30.3 | 23.4 |
| | | 무급가족종사자 | 15.9 | 3.2 | 9.6 | 7.5 |
| | | 상시고 일 고 | 45.0 | 80.9 | 47.6 | 58.9 |
| | | 일 고 | 8.8 | 6.0 | 12.4 | 10.2 |
| | 광주· 전남 | 자영업주 | 40.1 | 18.0 | 30.9 | 28.1 |
| | | 무급가족종사자 | 26.1 | 7.0 | 10.5 | 9.8 |
| | | 상시고 일 고 | 24.3 | 61.0 | 42.8 | 46.8 |
| | | 일 고 | 9.5 | 14.0 | 15.8 | 15.4 |
| 1992 | 전국 | 자영업주 | 29.8 | 11.8 | 28.1 | 23.3 |
| | | 무급가족종사자 | 14.1 | 3.8 | 8.7 | 7.2 |
| | | 상시고 일 고 | 48.5 | 78.5 | 53.0 | 60.5 |
| | | 일 고 | 7.6 | 5.8 | 10.2 | 8.9 |
| | 광주· 전남 | 자영업주 | 39.5 | 16.2 | 28.8 | 26.3 |
| | | 무급가족종사자 | 22.5 | 4.9 | 8.9 | 8.1 |
| | | 상시고 일 고 | 31.1 | 67.0 | 52.0 | 55.0 |
| | | 일 고 | 6.9 | 11.4 | 10.5 | 10.7 |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러나 이 지역은 산업화의 지연으로 타지역에 비해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비중이 낮다. 피고용자 비율은 1992년 전국 전산업 56.1%, 비농림어업 69.4%로 광주·전남보다 각각 18.1%, 3.7%포인트씩 높다. 이것은 광주·전남 지역이 농업의 비중이 높고, 비농림어업부문에서도 영세한 자영업주

와 다수의 무급가족종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중사상지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서 고용이 불안정한 일고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²¹⁾ 비농림어업에서 일고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전국 8.9%, 광주·전남 10.7%로 1.8%포인트 높은데 이것은 1986년, 1989년에도 마찬가지이다. 산업별로 보면 1992년 광주·전남 일고 근로자 115천 명 중 건설업이 5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광공업 21천 명, 농림어업 16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천 명 순이다. 일고의 비중이 높은 것은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일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산업에서 전국보다 높다는 점이다. 일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피용자 중 일고의 비율이 전국 54.8%, 광주·전남 58.4%이고 광공업도 각각 6.9%, 14.5%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노동시장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규모가 작음으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취업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²²⁾

〈표 IV-4〉 산업별 일고의 비율(1992)

| | 전 체 | 농림어업 | 광공업 | 서비스업 | | | | 비농림어업 |
|-------|------|------|------|------|------|--------------|-----|-------|
| | | | | | 건설업 | 도소매음 식숙박업 | 기타 | |
| 전 국 | 13.6 | 50.3 | 6.9 | 16.2 | 54.8 | 8.4 | 6.2 | 12.9 |
| 광주·전남 | 18.1 | 61.5 | 14.5 | 16.8 | 58.4 | 11.0 | 5.6 | 16.2 |

주 : 일고의 비율 = 일고 / 피용자×100.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21) 일고, 임시고,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모두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들 중 상당한 비율은 비자발적이다.

22) 이러한 사실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 전체 취업자에서 일고의 비율은 전국 5.1%, 광주·전남 7.2%이고, 비농림어업에서도 전국 5.1%, 광주·전남 7.3%이다(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7).

최근의 지역 자료가 없으므로 대우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6년의 종사상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자. 1993년 이후 조사에서 1993년 응답자 중 일부가 탈락하였고 매년 일부가 추가되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3년과 1996년에 모두 응답한 경우만을 집계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농수산업 종사자, 봉급자,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하였고 비정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전국의 변화를 보면 농수산업 종사자(가구주)는 1993년 12.3%에서 1996년 9.7%로 감소하였고, 봉급자는 1993년 43.7%에서 38.9%로 감소하였으며, 농림수산업을 뺀 자영업자도 25.0%에서 24.1%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구성비가 상승하였는데 비정규직은 9.5%에서 14.5%로 무급가족종사자는 9.5%에서 12.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전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봉급자는 25.5%에서 20.5%로, 자영업자는 23.0%에서 18.8%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8.2%에서 9.8%로, 무급가족종사자는 7.4%에서 26.8%로 증가하였다.

〈표 IV-5〉 종사상지위의 변화(1993~96)

(단위 : 명, %)

| | 전 국 | | | | 광주·전남 | | | |
|---------|-------|-------|-------|-------|-------|-------|------|-------|
| | 1993 | | 1996 | | 1993 | | 1996 | |
| 전 체 | 3,112 | 100.0 | 3,698 | 100.0 | 243 | 100.0 | 336 | 100.0 |
| 봉급자 | 1,360 | 43.7 | 1,439 | 38.9 | 62 | 25.5 | 69 | 20.5 |
| 자영업자 | 777 | 25.0 | 890 | 24.1 | 56 | 23.0 | 63 | 18.8 |
| 농수산업종사자 | 383 | 12.3 | 359 | 9.7 | 87 | 35.8 | 81 | 24.1 |
| 비정규직종사자 | 296 | 9.5 | 537 | 14.5 | 20 | 8.2 | 33 | 9.8 |
| 무급가족종사자 | 296 | 9.5 | 473 | 12.8 | 18 | 7.4 | 90 | 26.8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4, 1997.

이제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6년 현재 취업자가 1993년에는 어떠한 경제활동상태였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정규

직의 증가는 가사에서 유입된 인력에 크게 기인하고 봉급자, 자영업자, 농수산업 종사자에서 일부의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비정규직은 3년 전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현재도 비정규직인 비율은 1996년 비정규직의 24.2%이고, 33.3%가 가사에서, 정규직, 자영업자, 농수산업 종사자에서 각각 9.1%, 12.1%, 12.1%가 유입되었다. 전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가사에서 42.1%, 봉급자에서 10.4%, 자영업자, 농수산업 종사자에서 각각 7.3%, 2.8%씩 유입되었다.

둘째, 무급가족종사자도 주로 가사에서 새로 유입된 인력이다. 전국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48.4%가 가사종사자에서 유입되었고, 광주·전남도 마찬가지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성인력이 정규직에 취업하는 비율은 적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취업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됨을 의미한다. 전국의 자료로 이를 확인해 보면 1993년 가사활동자 중 60.5%가 3년 후에도 가사에 종사하였고, 12.7%가 무급가족종사자, 12.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반면, 봉급자로 이동한 비율은 5.5%에 불과하였다.

〈표 IV-6〉 취업자의 이전 경제활동상태(1993~96)

(단위 : %)

| 1996 \ 1993 | | 봉급자 | 자영업자 | 농수산업 | 비정규직 | 무급가족종사자 | 미취업 | 가사 | 학업 | 연로 | 기타 |
|-------------|---------|------|------|------|------|---------|------|------|-----|-----|-----|
| 전국 | 봉급자 | 73.6 | 4.8 | 0.3 | 3.7 | 0.6 | 4.4 | 6.9 | 4.8 | 0.5 | 0.4 |
| | 자영업자 | 15.6 | 66.3 | 1.6 | 3.7 | 2.9 | 1.2 | 8.1 | 0.1 | 0.4 | 0.0 |
| | 농수산업종사자 | 1.1 | 3.3 | 83.8 | 2.2 | 3.3 | 0.6 | 4.7 | 0.0 | 0.6 | 0.4 |
| | 비정규직종사자 | 10.4 | 7.3 | 2.8 | 25.0 | 2.4 | 5.0 | 42.1 | 1.3 | 3.4 | 0.4 |
| | 무급가족종사자 | 16.7 | 10.2 | 3.7 | 1.7 | 35.9 | 1.7 | 48.4 | 0.6 | 2.7 | 0.6 |
| 광주·전남 | 봉급자 | 66.7 | 4.3 | 1.4 | 8.7 | 1.4 | 5.8 | 5.8 | 5.8 | 0.0 | 0.0 |
| | 자영업자 | 11.1 | 65.1 | 4.8 | 0.0 | 0.0 | 1.6 | 15.9 | 0.0 | 1.6 | 0.0 |
| | 농수산업종사자 | 0.0 | 0.0 | 88.9 | 0.0 | 3.7 | 0.0 | 7.4 | 0.0 | 0.0 | 0.0 |
| | 비정규직종사자 | 9.1 | 12.1 | 12.1 | 24.2 | 6.1 | 0.0 | 33.3 | 0.0 | 0.0 | 3.0 |
| | 무급가족종사자 | 1.1 | 3.3 | 3.3 | 0.0 | 6.7 | 16.7 | 78.9 | 1.1 | 2.2 | 0.0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4, 1997.

셋째, 비중이 감소한 봉급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74.2%가 3년 후에도 봉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11.3%가 자영업자로, 4.8%가 비정규직으로 변화하였다. 자영업자는 7.1%가 비정규직으로 이동하였고, 봉급자로 5.4%, 무급가족종사자로 5.4%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비정규직이 3년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전국이 45.3%, 광주·전남이 40.0%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이 정규직인 봉급자로 이동한 비율은 전국 17.9%, 광주·전남 30.0%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7〉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1993~96)

(단위 : %)

| 1996 \ 1993 | | 봉급자 | 자영업자 | 농수산업 | 비정규직 | 무급가족종사자 | 가사 |
|-----------------------|---------|-------|-------|-------|-------|---------|-------|
|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전 국 | 봉급자 | 77.9 | 8.9 | 1.0 | 17.9 | 3.0 | 5.5 |
| | 자영업자 | 10.2 | 75.9 | 3.7 | 11.1 | 8.8 | 4.0 |
| | 농수산업종사자 | 0.3 | 1.5 | 78.6 | 2.7 | 4.1 | 0.9 |
| | 비정규직 | 4.1 | 5.0 | 3.9 | 45.3 | 4.4 | 12.5 |
| | 미취업 | 1.3 | 1.4 | 1.0 | 3.4 | 2.0 | 0.1 |
| | 무급가족종사자 | 0.7 | 2.3 | 3.1 | 2.7 | 57.4 | 12.7 |
| | 가 사 | 3.5 | 2.3 | 1.0 | 10.5 | 14.9 | 60.5 |
| | 연 로 | 1.1 | 1.7 | 5.7 | 4.1 | 4.1 | 3.7 |
| | 기 타 | 0.4 | 0.9 | 1.8 | 2.4 | 0.7 | 0.1 |
| | 학 업 | 0.4 | 0.0 | 0.0 | 0.0 | 0.7 | 0.0 |
| 전 체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광 주 · 전 남 | 봉급자 | 74.2 | 5.4 | 1.1 | 30.0 | 5.6 | 2.5 |
| | 자영업자 | 11.3 | 73.2 | 3.4 | 0.0 | 0.0 | 6.2 |
| | 농수산업종사자 | 0.0 | 0.0 | 82.8 | 0.0 | 16.7 | 3.7 |
| | 비정규직 | 4.8 | 7.1 | 4.6 | 40.0 | 11.1 | 6.8 |
| | 미취업 | 0.0 | 1.8 | 0.0 | 0.0 | 5.6 | 0.0 |
| | 무급가족종사자 | 1.6 | 5.4 | 3.4 | 0.0 | 33.3 | 44.1 |
| | 가 사 | 0.0 | 0.0 | 0.0 | 10.0 | 11.1 | 33.5 |
| | 연 로 | 4.8 | 5.4 | 3.4 | 10.0 | 11.1 | 2.5 |
| | 기 타 | 0.0 | 1.8 | 1.1 | 10.0 | 5.6 | 0.6 |
| | 학 업 | 3.2 | 0.0 | 0.0 | 0.0 | 0.0 | 0.0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4, 1997.

3. 직업별 취업자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하며, 과학 기술 혁명에 의해 노동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등 소위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증대된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비중은 1986년 54.0%이고 2000년이면 55.9%로 될 전망이다.²³⁾ 한국도 이들 직종의 비중이 증대되어 1996년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비율은 29.3%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대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지역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을 보면 전남의 농림어업 비중이 높아서 1996년 농림어업 숙련근로자가 467천 명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비농림어업부문을 보면 전국의 직종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판매직, 기능원은 각각 27.9%, 2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임금이 높은 전문직, 관리직 등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고 임금이 낮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IV-8〉 직업별 취업자 구성

| | | 전 체 | 관리자 | 전문가 | 사무직 | 서비스 직 | 농림 어업 | 기능원 | 단순 노무직 |
|---------|-------|--------|-----|-------|-------|-------|-------|-------|--------|
| 취업자 수 | 전 국 | 20,764 | 549 | 2,990 | 2,564 | 4,672 | 2,295 | 5,399 | 2,295 |
| | 광주·전남 | 1,578 | 26 | 167 | 133 | 310 | 467 | 312 | 163 |
| | 광 주 | 520 | 13 | 97 | 69 | 134 | 25 | 125 | 57 |
| | 전 남 | 1,058 | 13 | 70 | 64 | 176 | 442 | 187 | 106 |
| 구성비 (A) | 전 국 | 100 | 2.6 | 14.4 | 12.3 | 22.5 | 11.1 | 26.0 | 11.1 |
| | 광주·전남 | 100 | 1.6 | 10.6 | 8.4 | 19.6 | 29.6 | 19.8 | 10.3 |
| | 광 주 | 100 | 2.5 | 18.7 | 13.3 | 25.8 | 4.8 | 24.0 | 11.0 |
| | 전 남 | 100 | 1.2 | 6.6 | 6.0 | 16.6 | 41.8 | 17.7 | 10.0 |
| 구성비 (B) | 전 국 | | 3.0 | 16.2 | 13.9 | 25.3 | | 29.2 | 12.4 |
| | 광주·전남 | | 2.3 | 15.0 | 12.0 | 27.9 | | 28.1 | 14.7 |
| | 광 주 | | 2.6 | 19.6 | 13.9 | 27.1 | | 25.3 | 11.5 |
| | 전 남 | | 2.1 | 11.4 | 10.4 | 28.6 | | 30.4 | 17.2 |

주 : 구성비(B)는 농림어업 숙련근로자를 제외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23) E. Appelbaum and R. Schettkat(1990), p. 57.

최근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변화를 살펴보자. 직업별 구성은 직업분류가 변경되어 1993년부터 통계자료가 사용가능하다. 취업자는 3년간에 전국적으로 1,511천 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8%였는데, 광주·전남은 55천 명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상승하여 전국 여성취업자는 9.1% 증가했음에 반해 광주·전남은 3.4% 증가함으로써 남성의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것은 농림어업 여성취업자가 9.2%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직업별로 크게 증가한 직업은 전국적으로 서비스·판매직 643천 명, 전문가 614천 명, 단순노무직 183천 명, 기능원 147천 명 순이고 광주·전남에서는 서비스·판매직 48천 명, 전문가 19천 명, 기능원 14천 명, 단순노무직 6천 명 순으로 비슷하다.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직업은 전국에서 전문가가 25.8%로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직 16.0%, 단순노무직 8.7% 순이고 광주·전남에서는 관리자 23.8%, 서비스·판매직 18.3%, 전문가 12.8%, 기능원 4.7%, 사무직 3.9%, 단순노무직 3.8% 순이다. 서비스·판매직과 전문가는 전국과 광주·전남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동화 등 기술진보에 따른 직업구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능원과 단순노무직의 경우 전국에서 증가율이 높지 않은 반면, 광주·전남에서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전남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공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취업자는 이제까지 저임금 직업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변화에서도 고임금 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고, 저임금 직업 증가율이 높음으로써 여성취업자의 저임금 직업 편중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이나 광주·전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여성취업이 크게 증가한 직업은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으로 모두 각 직업의 남성취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남성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 구조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고급여성인력 활

〈표 IV-9〉 직업별 취업자 구성변화(1993~96)

(단위 : 천명, %)

| | | | 전 체 | 관리자 | 전문가 | 사무직 | 서비스 직 | 농림 어업 | 기능원 | 단순 노무직 |
|----------|-----------|----|-------|-------|------|------|----------|----------|-------|-----------|
| 취업자 수 | 전국 | 전체 | 1,511 | 26 | 614 | 150 | 643 | -251 | 147 | 183 |
| | | 여자 | 706 | -7 | 146 | 200 | 513 | -59 | -204 | 106 |
| | 광주· 전남 | 전체 | 55 | 5 | 19 | 5 | 48 | -41 | 14 | 6 |
| | | 여자 | 22 | 1 | 4 | 6 | 34 | -24 | -1 | 5 |
| 증가율 | 전국 | 전체 | 7.8 | 5.0 | 25.8 | 6.2 | 16.0 | -9.9 | 2.8 | 8.7 |
| | | 여자 | 9.1 | -21.9 | 17.7 | 17.8 | 22.5 | -5.2 | -16.0 | 9.8 |
| | 광주· 전남 | 전체 | 3.6 | 23.8 | 12.8 | 3.9 | 18.3 | -8.1 | 4.7 | 3.8 |
| | | 여자 | 3.4 | - | 8.9 | 9.7 | 21.5 | -9.2 | -2.1 | 7.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7.

용 측면에서 볼 때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학력별 취업자

광주·전남 취업자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다.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자는 1996년 전국 63.3%, 광주·전남 47.0%이고, 대졸 이상은 각각 19.6%, 13.5%이다. 이것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학력이 낮은 고령의 농림어업수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의 취업자 학력이 특히 낮은 점은 이를 말해준다. 성별로 구분하여 여성만 보면 전체 여성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자 중 고졸 이상의 비율은 전국이 53.3%이지만 광주·전남은 35.0%에 불과하다.

〈표 IV-10〉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단위 : 천명, %)

| | | 전 체 | | 국졸 이하 | | 중 졸 | | 고 졸 | | 대졸 이상 | |
|-------|----|--------|-----|-------|------|-------|------|-------|------|-------|------|
| 전국 | 전체 | 20,764 | 100 | 4,246 | 20.4 | 3,366 | 16.2 | 9,081 | 43.7 | 4,071 | 19.6 |
| | 여자 | 8,434 | 100 | 2,468 | 29.3 | 1,472 | 17.5 | 3,307 | 39.2 | 1,187 | 14.1 |
| 광주·전남 | 전체 | 1,578 | 100 | 580 | 36.8 | 255 | 16.2 | 529 | 33.5 | 213 | 13.5 |
| | 여자 | 663 | 100 | 335 | 50.5 | 94 | 14.2 | 172 | 25.9 | 63 | 9.5 |
| 광주 | 전체 | 520 | 100 | 76 | 14.6 | 80 | 15.4 | 234 | 45.0 | 129 | 24.8 |
| | 여자 | 212 | 100 | 46 | 21.7 | 37 | 17.5 | 86 | 40.6 | 43 | 20.3 |
| 전남 | 전체 | 1,058 | 100 | 504 | 47.6 | 175 | 16.5 | 295 | 27.9 | 84 | 7.9 |
| | 여자 | 451 | 100 | 289 | 64.1 | 57 | 12.6 | 86 | 19.1 | 20 | 4.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그러나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의 학력은 광주·전남 지역이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공급부문에 논의했듯이 타지역에 비해 양질의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5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업종인 전기·가스업, 금융·보험업, 교육 및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학력화가 진전된 업종은 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인데²⁴⁾ 광주·전남은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자동차 등에 제조업 취업자의 77.8%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전국 비중은 66.7%이다.

종사상지위별로 학력 구성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확인된다. 〈표 IV-11〉에서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학력이 낮는데 무급가족종사자는 다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서 봉급자는 비농림어업 수산업 종사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인데 그들의 학력 분포는 전국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고졸 이상 봉급자는 전국 81.4%, 광주·전남 76.6%로 전국평균이 약간 높으나 초대졸 이상으로 보면 전국 34.7%, 광주·전남 38.3%로 광주·전남이 약간 높다.

24) 박남건·김현정(1991), 2쪽.

취업자의 학력은 충분히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방식이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량생산방식이 지배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 노동과정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며, 탈숙련화·파편화됨으로써²⁵⁾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보다는 다수의 미숙련, 반숙련공이 필요하게 된다. 광주 지역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소수의 간접부서를 제외하고는 담당작업을 습득하는 데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특별한 훈련과정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을 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제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고도의 지식을 가진 노동자보다는 중졸·고졸의 기본적인 지식과 체력을 가진 젊은 노동력이 대부분이고 연구·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사무자동화에 의해 작업이 단순화되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표 IV-11〉 종사상지위별 학력 분포

(단위 : %)

| | | 국졸 이하 | 중 졸 | 고 졸 | 초대졸 이상 |
|-------|----------|-------|------|------|--------|
| 전 국 | 전 체 | 22.4 | 16.0 | 40.2 | 21.4 |
| | 봉급자 | 8.1 | 10.5 | 46.7 | 34.7 |
| | 자영업자 | 12.2 | 18.3 | 47.7 | 21.9 |
| | 농림수산업종사자 | 57.7 | 18.9 | 20.5 | 2.9 |
| | 비정규직 | 34.6 | 21.3 | 33.9 | 10.1 |
| | 무급가족종사자 | 47.9 | 21.8 | 26.9 | 3.4 |
| 광주·전남 | 전 체 | 38.3 | 18.6 | 29.6 | 13.5 |
| | 봉급자 | 11.7 | 11.7 | 38.3 | 38.3 |
| | 자영업자 | 15.5 | 18.3 | 50.7 | 15.5 |
| | 농림수산업종사자 | 60.7 | 23.8 | 15.5 | 0.0 |
| | 비정규직 | 36.4 | 27.3 | 29.5 | 6.8 |
| | 무급가족종사자 | 61.6 | 17.2 | 18.2 | 3.0 |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1996년 제4차 한국가구패널조사』, 1997.

25) Brighton Labour Process Group(1977).

26) 홍성우(1991).

V. 光州·全南 勞動市場의 機能

1. 실업률

광주·전남의 실업자는 1996년 25천 명으로 실업률은 1.6%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낮은 전국 실업률 2.0%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 지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용-피고용 관계의 비율이 높은 비농가의 실업률이 높고, 자영업이 대부분인 농가의 실업률이 낮는데 있으며, 광주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2.8%를 기록하였으나 전남이 0.9%로 아주 낮았기 때문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자의 취업은 가계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일자리가 없을 경우 남자보다 쉽게 구직을 포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낮다. 남자의 실업률은 1996년 광주·전남이 1.9%로 전국 2.3%보다 낮았고, 여자의 실업률은 1.0%로 전국 1.6%보다 낮았다. 그러나 광주·전남을 구분해 보면 광주의 실업률이 높고 전남의 실업률은 낮았다.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함께 변화하는데 광주·전남의 실업률도 전국의 실업률 변화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1991~93년까지 실업률이 상승하다가 그 이후 1996년까지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1997년은 전국적으로 실업률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실업률의 상승폭이 컸다. 아시아자동차와 협력업체가 광주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아자동차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아시아자동차의 경력이 많은 근로자들이 다수 퇴직했으며, 연이은 협력업체의 부도에 의해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였기 때문이다.

〈표 V-1〉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전 체 | 전 국 | 2.3 | 2.4 | 2.8 | 2.4 | 2.0 | 2.0 |
| | 광주·전남 | 1.4 | 1.6 | 2.3 | 2.0 | 1.8 | 1.6 |
| | 광 주 | 2.9 | 2.8 | 4.0 | 3.7 | 2.9 | 2.8 |
| | 전 남 | 0.9 | 1.1 | 1.6 | 1.2 | 1.2 | 0.9 |
| 남 자 | 전 국 | 2.5 | 2.6 | 3.2 | 2.7 | 2.3 | 2.3 |
| | 광주·전남 | 1.8 | 1.9 | 2.8 | 2.4 | 2.2 | 1.9 |
| | 광 주 | 3.5 | 3.3 | 4.2 | 4.1 | 3.2 | 3.2 |
| | 전 남 | 1.1 | 1.2 | 2.1 | 1.6 | 1.6 | 1.3 |
| 여 자 | 전 국 | 1.9 | 2.1 | 2.2 | 1.9 | 1.7 | 1.6 |
| | 광주·전남 | 1.0 | 1.2 | 1.7 | 1.4 | 1.2 | 1.0 |
| | 광 주 | 2.1 | 2.1 | 3.7 | 3.0 | 2.4 | 2.3 |
| | 전 남 | 0.6 | 0.8 | 0.9 | 0.6 | 0.7 | 0.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1997.

2. 취업경로

시장경제에서 노동시장은 가장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이다. 광주·전남의 취업자들이 얻는 구직정보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해 획득된다. 취업자 중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취업한 사람이 64.0%로 가장 많았고, 공공 및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는 2.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²⁷⁾ 공공직업소개소가 발달한 유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비율이다.

27) 대우경제연구소, 『1996년 제4차 한국가구패널조사』에서도 1996년 공공 및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했거나 구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봉급자 중 2.8%, 비정규직의 3.3%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자료는 표본의 수가 작아 신뢰도가 작지만 봉급자 응답자 15명 중에는 전혀 없었고 비정규직 응답자 15명 중 1명만이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했다고 답변하였다.

〈표 V-2〉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

| | 전 국 | 광주·전남 |
|----------|------|-------|
| 취직시험 | 13.4 | 15.4 |
| 학교·학원 추천 | 7.7 | 6.7 |
| 친구·친지 소개 | 64.7 | 64.0 |
| 직업소개소 | 2.0 | 2.2 |
| 신문·잡지·벽보 | 10.0 | 9.0 |
| 기 타 | 2.2 | 2.6 |

주 : 자기·가족사업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직업안정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여 재정과 인원배치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직업소개기관은 국공립과 민간직업소개소를 포함하여 199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610개, 광주·전남에 107개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직업소개기관 인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1995년 현재 한국은 298명의 직업소개원이 있고 1인당 피용자수는 66,555명이고, 독일은 10,090명의 소개원이 1인당 3,230명, 일본은 약 4,000명의 직업소개원이 1인당 12,500명의 피용자를 담당한다.²⁸⁾

〈표 V-3〉 직업소개기관 설치현황(1995년 말)

(단위 : 개소)

| | 전체 | 국 립 | | | 공 공 | | | 민 간 | | |
|-------|-------|-----|--------|--------|-----|-------|-----|-------|-----|-------|
| | | 소계 | 지방노동관서 | 전문인력센터 | 소계 | 시·군·구 | 안내소 | 소계 | 무료 | 유료 |
| 전 국 | 1,610 | 52 | 46 | (6) | 287 | 253 | 34 | 1,271 | 150 | 1,121 |
| 광주·전남 | 107 | 4 | 3 | (1) | 31 | 29 | 2 | 72 | 11 | 61 |

자료 : 정연택(1997), 18쪽.

28) 정연택(1997), 50쪽.

1995년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은행이 서울, 대구와 함께 1996년 7월 27일 광주에도 개설되었다. 인력은행은 노동청의 직업안정과 주도하에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상담원들도 별도로 채용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력은행은 전문적인 상담원 11명과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취업알선 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인구직자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없다. 또한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창구, 주부·고령자·장애인을 담당하는 잠재인력창구, 생산직을 담당하는 일반인력창구로 창구를 세분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실적이 극히 미미한 한국에서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력은행은 기존의 사설직업소개소의 소개료 및 윤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²⁹⁾

3. 구인·구직동향

가. 전 체

노동부는 전국 203개 국립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연결된 취업알선 전산망을 이용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전산망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가 극히 적으므로 구인·구직 동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우므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발간한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

29) 필자의 시간제 근로자 조사(1997)에 의하면 응답자 455명 중 4명만이 인력은행을 이용했고, 대부분은 친구나 친지 등의 소개로 취업하고 있었다.

향』을 활용하여 구인·구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력 집단의 과부족을 알아본다.

광주·전남에서 국립·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직업취업알선 전산망을 통해 구직한 인원은 1996년 1년 동안 10,234명, 구인인원은 10,742명으로 전국의 6.8%와 5.0%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기관 이용률이 취업자 비율 7.6%보다 낮지만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 비율 6.0%와 비슷하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농업의 비중이 높아서 이들 기관의 이용도가 낮다.

구인배율은 전국 1.43에 광주·전남 1.05로 낮은 수준이고, 연말의 유효구인배율도 전국보다 낮아서 0.47이다. 그러나 취업률은 14.0%로 전국과 비슷하여 직업소개기능이 전국에 비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의 구인배율이 남성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직업소개기능이 미숙련, 낮은 임금근로자의 채용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표 V-4〉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1996.12.)

(단위 : 명, 배, %)

| | 신규구인 인원 | 유효구인 인원 | 신규구직 자수 | 유효구직 자수 | 취업건수 | 구인배율 | 유효구인 배율 | 취업률 |
|-------|------------|------------|------------|------------|--------|------|------------|------|
| 전 국 | 215,925 | 25,001 | 150,668 | 45,634 | 20,939 | 1.43 | 0.55 | 13.9 |
| (여자) | 53,000 | 5,854 | 55,304 | 15,789 | 9,154 | 0.96 | 0.37 | 16.6 |
| 광주·전남 | 10,742 | 1,280 | 10,234 | 2,696 | 1,431 | 1.05 | 0.47 | 14.0 |
| (여자) | 2,443 | 390 | 3,904 | 1,125 | 564 | 0.63 | 0.35 | 14.5 |
| 광 주 | 8,497 | 980 | 8,999 | 2,399 | 1,228 | 0.94 | 0.41 | 13.7 |
| 전 남 | 2,245 | 300 | 1,235 | 297 | 203 | 1.82 | 1.01 | 16.4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나. 직업별

이제 직업별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을 통해 노동력의 수급상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직업안정기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첫째, 단순노무직은 구인배율이 가장 높아 노동력 부족률이 가장 높고 따라서 취업률도 가장 높다. 단순노무직의 구인인원은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직자의 비중은 취업자 구성비와 비슷하다. 광주·전남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14.7%인데 구인·구직자 구성비는 각각 28.8%, 12.9%이다. 따라서 구인배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전국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둘째, 사무직의 구인배율이 광주·전남의 경우 0.54로 가장 낮아 잉여 노동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은 구인 및 구직자 비율이 취업자 구성비보다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9.3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표 V-5〉 직업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단위 : 명, 배, %)

| |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국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43 | 13.90 |
| | 관리직 | 2.1 | 2.4 | 1.2 | 1.21 | 7.02 |
| | 전문직 | 9.6 | 12.5 | 9.5 | 1.10 | 10.60 |
| | 준전문직 | 17.8 | 14.5 | 14.4 | 1.76 | 13.81 |
| | 사무직 | 21.2 | 31.5 | 34.5 | 0.97 | 15.23 |
| | 서비스 및 판매직 | 3.8 | 4.2 | 4.0 | 1.27 | 13.33 |
| | 농업 및 어업직 | 0.1 | 0.3 | 0.1 | 0.33 | 3.41 |
| | 기능직 | 10.6 | 10.6 | 6.9 | 1.43 | 9.07 |
| | 기계조작 및 조립직 | 8.4 | 8.3 | 7.7 | 1.43 | 12.90 |
| | 단순노무직 | 26.6 | 15.6 | 21.5 | 2.44 | 19.16 |
| 광주·전남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5 | 13.98 |
| | 관리직 | 2.5 | 2.6 | 1.5 | 1.03 | 8.37 |
| | 전문직 | 11.1 | 15.6 | 17.8 | 0.75 | 16.01 |
| | 준전문직 | 8.7 | 10.3 | 7.7 | 0.89 | 10.42 |
| | 사무직 | 18.4 | 36.0 | 24.1 | 0.54 | 9.37 |
| | 서비스 및 판매직 | 6.4 | 6.2 | 6.3 | 1.09 | 14.22 |
| | 농업 및 어업직 | 0.2 | 0.1 | 0.0 | 3.83 | 0.00 |
| | 기능직 | 16.9 | 11.6 | 13.1 | 1.52 | 15.79 |
| | 기계조작 및 조립직 | 6.8 | 4.8 | 6.1 | 1.49 | 17.79 |
| | 단순노무직 | 28.8 | 12.9 | 23.3 | 2.34 | 25.26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셋째, 그 밖의 노동력 부족률이 높은 직종은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 직인데 이것은 전남에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반영한 것이다.

다. 학력별

학력별 구인·구직 현황을 통해 학력별 노동력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고졸의 노동력 부족률이 높다. 고졸의 구인배율은 광주·전남 1.91, 전국 2.41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구인배율이 작아져서 고학력일수록 노동력의 초과공급이 커진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전문대졸 구인배율은 0.40, 대졸 이상은 0.13이다. 이것은 노동력의 고학력화로 고급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고학력자의 실업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표 V-6〉 학력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 국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43 | 13.9 |
| | 중졸 이하 | 12.8 | 18.5 | 12.1 | 0.99 | 9.09 |
| | 고졸 | 71.5 | 42.5 | 52.2 | 2.41 | 17.07 |
| | 전문대졸 | 12.1 | 19.9 | 21.4 | 0.88 | 14.98 |
| | 대졸 이상 | 3.6 | 19.1 | 14.3 | 0.27 | 10.39 |
| 광주·전남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5 | 13.98 |
| | 중졸 이하 | 17.4 | 17.8 | 16.4 | 1.02 | 12.89 |
| | 고졸 | 71.2 | 39.0 | 42.7 | 1.91 | 15.29 |
| | 전문대졸 | 9.2 | 24.3 | 25.1 | 0.40 | 14.42 |
| | 대졸 이상 | 2.3 | 18.8 | 15.8 | 0.13 | 11.73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라. 기능수준별

기능수준별 노동력 수급상황을 보면 첫째, 미숙련 및 반숙련기능자에

대한 구인 인원이 많다. 이것은 전술했듯이 생산직의 담당업무가 간접부서를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 내에 숙달될 수 있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노동력 부족률이 높다. 광주·전남 미숙련기능자의 구인배율은 2.03, 반숙련기능자는 1.72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나타났지만 숙련기능자의 구인배율은 0.54로 초과공급이다. 이를 반영하여 취업률도 미숙련기능자 23.16, 반숙련기능자 18.60으로 평균 취업률 13.98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숙련기능자는 9.59에 머무르고 있다.

〈표 V-7〉 기능수준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국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43 | 13.90 |
| | 전문기술, 사무계 | 16.7 | 34.4 | 22.0 | 0.70 | 8.89 |
| | 기능계 | 83.3 | 65.6 | 78.0 | 1.82 | 16.53 |
| | 미숙련기능자 | 47.4 | 25.8 | 41.8 | 2.63 | 22.47 |
| | 반숙련기능자 | 26.9 | 20.8 | 26.4 | 1.86 | 17.68 |
| | 숙련기능자 | 8.2 | 17.8 | 8.3 | 0.66 | 6.44 |
| 광주·전남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5 | 13.98 |
| | 전문기술, 사무계 | 8.3 | 21.1 | 13.1 | 0.41 | 8.70 |
| | 기능계 | 91.7 | 78.9 | 86.9 | 1.22 | 15.40 |
| | 미숙련기능자 | 46.2 | 23.9 | 39.6 | 2.03 | 23.16 |
| | 반숙련기능자 | 24.7 | 15.0 | 20.0 | 1.72 | 18.60 |
| | 숙련기능자 | 20.6 | 39.7 | 27.2 | 0.54 | 9.59 |
| | 지도기능자 | 0.7 | 1.1 | 1.5 | 0.94 | 18.84 |
| | 지도기능자 | 0.2 | 0.3 | 0.1 | 0.73 | 6.06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마. 고용형태별

일용과 시간제 근로자의 구인·구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아서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직

업안정소를 이용하는 일용의 비중이 작은 것은 일용이 가장 많은 건설업의 경우 인력시장이 지역별로 근로자 대기소의 형태로 존재하여 대부분 이곳을 이용하거나 연고를 통하여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최근 광주·전남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이 전국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일용의 구인배율이 1.96, 시간제 일용이 1.16으로 전국적으로 일용의 초과수요 현상을 볼 수 있으나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일용근로자의 구인배율이 4.03, 시간제 일용도 2.16로 전국보다 높고 취업률도 높았다.

〈표 V-8〉 고용형태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국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43 | 13.90 |
| | 상 용 | 97.4 | 98.1 | 95.7 | 1.42 | 13.55 |
| | 일 용 | 1.5 | 1.1 | 3.0 | 1.96 | 38.43 |
| | 시간제 상용 | 0.8 | 0.5 | 0.8 | 2.45 | 23.14 |
| | 시간제 일용 | 0.3 | 0.3 | 0.5 | 1.16 | 22.59 |
| 광주· 전남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5 | 13.98 |
| | 상 용 | 95.7 | 97.1 | 91.1 | 1.04 | 13.13 |
| | 일 용 | 1.5 | 0.4 | 4.6 | 4.03 | 169.23 |
| | 시간제 상용 | 1.8 | 2.1 | 2.7 | 0.92 | 18.40 |
| | 시간제 일용 | 1.0 | 0.5 | 1.5 | 2.16 | 44.00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여성만 국한하여 보면 광주·전남의 경우 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및 구직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또한 일용과 시간제 일용의 구인배율이 각각 2.33, 2.56으로 여성 전체 구인배율 0.63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은 유통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일용의 경우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보여준 것이다.

〈표 V-9〉 고용형태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여자)

| |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국 | 전 체 | 100.0 | 100.0 | 100.0 | 0.96 | 16.55 |
| | 상 용 | 97.4 | 96.8 | 94.0 | 0.96 | 16.08 |
| | 일 용 | 1.7 | 1.7 | 4.0 | 0.94 | 38.46 |
| | 시간제 상용 | 0.6 | 0.9 | 1.2 | 0.66 | 21.67 |
| | 시간제 일용 | 0.3 | 0.6 | 0.7 | 0.51 | 20.99 |
| 광주· 전남 | 전 체 | 100.0 | 100.0 | 100.0 | 0.63 | 14.45 |
| | 상 용 | 90.7 | 94.5 | 82.3 | 0.60 | 12.58 |
| | 일 용 | 2.9 | 0.8 | 9.8 | 2.33 | 183.33 |
| | 시간제 상용 | 3.1 | 3.9 | 5.0 | 0.49 | 18.30 |
| | 시간제 일용 | 3.4 | 0.8 | 3.0 | 2.56 | 53.13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바. 연령별

연령별 구인·구직 현황을 보면 첫째, 구인은 남성의 경우 25~34세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20~29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직은 모두 20~29세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신규 취업을 하거나 노동이동이 심한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은 구인·구직 모두 20대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의 수요측에서 미혼을 선호하고, 공급측에서도 결혼한 후 육아 등에 의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대 초에 구인·구직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셋째, 노동력의 고령화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중년 이상 고령 근로자의 구직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구인은 거의 없어 구인배율 역시 매우 낮다.

〈표 V-10〉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 구인·구직 및 취업(1996)

| | 연령별 | 구 인 | 구 직 | 취 업 | 구인배율 | 취업률 |
|----|--------|-------|-------|-------|------|-------|
| 전체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5 | 13.98 |
| | 19세이하 | 0.3 | 14.1 | 11.0 | 0.02 | 10.90 |
| | 20~24세 | 18.8 | 28.4 | 35.0 | 0.70 | 17.22 |
| | 25~29세 | 35.2 | 28.9 | 32.5 | 1.28 | 15.70 |
| | 30~34세 | 25.6 | 9.2 | 8.0 | 2.92 | 12.23 |
| | 35~39세 | 14.4 | 6.6 | 4.1 | 2.29 | 8.75 |
| | 40~44세 | 3.3 | 4.1 | 3.4 | 0.83 | 11.32 |
| | 45~49세 | 1.3 | 2.5 | 2.1 | 0.55 | 11.81 |
| | 50~54세 | 0.6 | 1.9 | 1.5 | 0.32 | 11.22 |
| | 55~59세 | 0.6 | 2.6 | 1.5 | 0.23 | 7.87 |
| | 60~64세 | 0.4 | 1.1 | 0.6 | 0.36 | 7.14 |
| | 65세이상 | 0.1 | 0.6 | 0.3 | 0.19 | 8.77 |
| 여자 | 전 체 | 100.0 | 100.0 | 100.0 | 0.63 | 14.45 |
| | 19세이하 | 0.9 | 11.4 | 7.3 | 0.05 | 9.23 |
| | 20~24세 | 54.0 | 47.1 | 55.3 | 0.72 | 16.97 |
| | 25~29세 | 25.1 | 14.2 | 13.7 | 1.11 | 13.90 |
| | 30~34세 | 8.1 | 6.3 | 3.7 | 0.81 | 8.61 |
| | 35~39세 | 8.0 | 7.9 | 6.0 | 0.64 | 11.04 |
| | 40~44세 | 1.6 | 6.1 | 5.3 | 0.17 | 12.50 |
| | 45~49세 | 1.1 | 3.6 | 4.1 | 0.20 | 16.55 |
| | 50~54세 | 0.9 | 1.9 | 2.1 | 0.30 | 16.22 |
| | 55~59세 | 0.1 | 1.3 | 1.4 | 0.06 | 16.33 |
| | 60~64세 | 0.0 | 0.2 | 0.9 | 0.00 | 55.56 |
| | 65세이상 | 0.0 | 0.1 | 0.2 | 0.00 | 25.00 |

자료 : 노동부,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VI. 政策課題 및 提言

이제까지 광주·전남 지역 노동시장을 노동력, 노동의 질, 취업구조, 노동시장기능 측면에서 개관해 보았다. 광주·전남의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과 같이 전국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고령화와 불안정고용이 타지역에 비해 심하다. 또한 산업화가 늦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근대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취업자의 비율이 낮으며, 저임금직업 비중이 높고, 교육훈련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확보

취업자 기준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전국적으로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은 산업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아직도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전남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노동시장은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전국에 비해 노동력이 양질이면서 풍부하지만 교육훈련을 받은 많은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직종별, 산업별, 기능정도별로 구분해 보면 부족현상도 나타난다.

첫째, 고급인력의 확보 문제이다. 타지역 자본에 의해 이 지역에 기업이 신설되거나 이설될 때 생산직, 서비스 및 판매직과 같이 저임금 직종은 대부분 이 지역 출신 근로자들에 의해 채워지지만 관리직과 기술직 등은

타지역 출신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³⁰⁾ 이때 기업들은 관리직과 기술직의 채용과 배치에서 어려움을 느낀다.³¹⁾ 즉 타지역 출신이 이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정체성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급인력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고 있는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발전의 기회 부족이고, 다음이 좋은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혼자만 이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남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진출기업과 지방정부간의 협조하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VI-1〉 관리직의 광주·전남 지역 근무중 애로사항

(단위 : %)

| | 없음 | 자녀 교육 | 자기발전 기회 | 친척이 없음 | 생활 환경 | 인심 | 기타 | 무응답 |
|-----|----|-------|---------|--------|-------|----|----|-----|
| 구성비 | 14 | 17 | 40 | 6 | 0 | 0 | 18 | 5 |

자료 : 홍성우(1994).

둘째, 생산직의 경우도 노동력이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필요한 기능을 가진 인력은 부족하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많은 기능인력이 훈련되어 배출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능인력 유출은 주로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고졸 및 직훈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구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양성된 기능인력 중 광주·전남 지역에서 취업한 인원은 30~40%에 불과하다.³²⁾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노무직 역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말 이후³³⁾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신규로 공단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30) 필자의 조사(1994)에 의하면 광주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는 85.8%가 광주·전남 출신인 반면, 관리자는 56.1%만이 이 지역 출신이었다.

31) 홍성우(1994) 및 국토개발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1992).

32) 김종재·박성수(1991).

이 지역의 경우 이러한 인력난은 광주의 하남공단 2, 3차, 평동공단, 첨단 산업단지, 전남의 대불공단, 율촌공단, 나주공단, 20여 개의 농공지구가 계속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입주하게 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산직의 인력유출 문제를 단기에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범하고 대규모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급속한 산업화로 지역 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가능한 대책으로 기숙사 시설 확충, 근로자주택 건설 등 복리후생시설 증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³⁴⁾

2. 노동력 구성 변화에 대한 대책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평균수명이 70세를 넘고 있고, 저출생-저사망률로 인구모형이 항아리꼴로 옮겨가고 있으며, 연소층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중·고령 인력이 우리 노동력의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³⁵⁾

앞에서 분석했듯이 광주·전남 인구는 전국에 비해 노령화 정도가 더 심하다. 노령화 지수가 전국과 비교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1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전국과 비슷하지만 25~54세의 비중은 전국 45.0%보다 4.7%포인트 낮은 40.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인력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3) 이 지역도 이미 이 시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1년에 여수·순천권 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44.4%에 해당하는 36개 업체가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고,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생산기술직, 단순노무직이었으며, 인력난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였다(한국은행 광주지점(1991. 7.)).

34) 홍성우(1991)에 의하면 광주 지역 생산직 근로자들의 의식생활은 필요한 양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택과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임성훈(1990) 연구에서도 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이 지역으로 되돌아 온 근로자들 중 그 이유로 36.0%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주택문제 해결이 노동력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5) 박성준(1991), 38쪽.

제조업에서는 고령자에게 알맞은 직종을 선택하여 재교육 및 부서를 이 동시켜 활용하고, 공정을 육체적인 힘이 덜 들도록 개조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고령자들을 시간제 근무로 활용 하거나 주차요원, 매표원, 경비원, 관광안내요원 등 상대적으로 육체의 부 담을 적게 주는 직종에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 촌과 산간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휴양시설로 개조하여 운용할 때 증가하는 고령노동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력은 여성의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수요의 측면 에서 보면 경제의 서비스화 및 제조업의 소프트화 추세에 의해 산업구조 가 변화하고 노동과정이 변화함으로써 육체적인 힘이 현장에서 별로 중요 하지 않게 되고 단순화되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측 면에서도 출산 자녀수의 감소, 가사노동 부담의 경감, 교육비와 생활비 압 박의 증가, 여성취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보편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로 M자 모양을 갖는다. 기혼여 성의 성격에서 보았지만 많은 주부들이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출산,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참가를 희망하는 핵심부분은 기혼여성임을 고려하여 탁아시설의 확충 이 요구된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 많다 는 점이 고려되어 직무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가 고안되어야 한 다.³⁶⁾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주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대를 고려하고 업종 별로 이미 많은 인력이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기혼여성이 선호하는 유통업, 금융업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고용불안정과 임금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이지만 장 기적인 고용계약,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6)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130쪽.

3. 교육훈련

어떤 지역의 산업인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의해 배출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다시 교육기관으로 피드백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불필요한 노동이동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인력 확보방안으로서 전국 지방기업에 대한 설문에서 57.6%가 '지방대학, 전문대학 학과를 그 지방의 주력기업에 맞게 특화한다', 47.7%가 '사내연수 및 훈련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43.2%가 '지방에 실업계 고교를 늘린다'에 응답하였다(2개 항목 응답).³⁷⁾

광주·전남의 고등학교 교육은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전국과 비슷하다.³⁸⁾ 실업계 중 공업계의 비중은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높은 진학률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은 풍부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금속, 기계, 건축, 토목, 사무관련 등의 비중이 높아서 바람직하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자율이 높아서 타지역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화공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적다. 석유화학공업은 장치산업으로 화공인력보다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점은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과정의 수를 늘리고, 미래의 성장산업을 고려하여 과정과 학생수

37) 박남건·김현정(1991), 121~122쪽. 이 지역의 기업들도 33.3%가 '지역내 교육기관 설립', 33.3%가 '자체 기술교육', 29.7%가 '기술훈련소 교육'으로 기술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한국은행 광주지점(1991)).

38)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1. 11.)에 의하면 교육부는 실업계의 비중을 1995년까지 50%로 하고 실업계의 공업계 비율 32.5%를 1995년까지 45%로 늘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1996년 광주·전남 실업계 학생비율은 41.1%이고 공업계는 그 중 41.8%로 이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광주·전남 지역에 특히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부품, 자동차, 전자·반도체 등이다.³⁹⁾ 그러나 앞으로 변화할 산업구조를 고려한다면⁴⁰⁾ 컴퓨터, 통신, 유통, 외국어 관련 과정 등을 신설하거나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개설되지 않은 과정은 컴퓨터, 통신, 조선, 섬유, 식품공업, 디자인, 외국어관련 과정이다.

셋째,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낙후된 시설에서 기능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양적인 확대는 큰 의미가 없다. 광주·전남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험실습 기자재가 노후화된 것이 많고, PC의 보유대수나 실습실 면적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와 기업의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완전 개방화되었고, 이제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이겨야만 지탱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노동집약적 생산은 우리나라에 ‘압축형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역동적 기초였다. 이것은 양질의 풍부하고도 저렴한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대외기술사용료 지급이 급증하고 있고 저임금에만 기초한 경제발전이 일정한 한계에 와 있다. 임금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하여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⁴¹⁾ 이제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국제경쟁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기술개발과 합리화를 통해 소요인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이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21세기에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와 기업들의 산학협동이 반드시 필요할

39)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권 중소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1991, 190쪽.

40) 최근의 광주·전남 지역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첨단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예술관광, 컨벤션센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중인 광주시 기본계획, 진행중인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1997. 10.) 등이 모두 그러하다.

41) 이대근 외(1991), 293쪽.

것이다.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서도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과학 두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처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일부 공과대학과 산업체 사이에 산학협동체제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각급 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더욱 힘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요망된다.

4. 노동시장 기능제고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저해한다. 근로자는 탐색비용과 탐색에 의한 편익을 비교하여 탐색을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한다. 따라서 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있을수록 탐색중에 있는 실업자가 줄어든다. 기업측에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광주·전남에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기업이 기능인력 확보의 애로사항으로 필요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중소기업 32.7%, 대기업 42.3%로 아주 높다.⁴²⁾

근로자들의 입직경로를 보면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공공 및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사례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직경로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공개모집 35.8%, 사원 추천 41.1%, 사내직업훈련원 13.0%, 출신학교 추천 5.9%이고,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는 공개모집 10.3%, 사원 추천 69.6%, 출신학교 추천 5.9%, 벽보 8.9%, 직업안내소 0.5%로 특히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연고채용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⁴³⁾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고채용은 인력확보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서 입사 희망자가 많은 대기업에도 사원 추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42) 박남건외(1990), 72쪽.

43) 홍성우(1991).

어렵다. 취업알선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있지만 그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고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동사무소까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은 무급가족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도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산업구조조정과 고실업률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보험이 실시되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적용이 제외된 사업장이 많고⁴⁴⁾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보험사업에서는 직종간·산업간 노동이동이 가능하도록 재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정부의 직업훈련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예산의 노정관리비는 0.24%이며 그 중 77%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직업안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⁴⁵⁾ 반면 일본의 경우⁴⁶⁾ 지방재정 중 노동비는 0.8%이고 그 중 40%가 실업대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인재은행, 학생직업센터, 파트뱅크, 고령자 직업상담실 등 다양한 직업안정기구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4) 광주·전남은 영세사업장이 많아서 1996년 말 피보험자는 전국의 3.9%로 취업자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1997. 봄.

45) 홍성우(1995).

46) 이종구(1993), 36~37쪽.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1. 11.
-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1997. 봄.
-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1996.
-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권 중소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1991.
-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제연구센터, 『21세기를 향한 광주권 경제발전의 기본구상』, 1991.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 국토개발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입지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992.
- 김병조·김순영, 「한국의 여성 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경제와 사회』, 1996. 가을.
- 김종재·박성수,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결방안 - 광주지역 제조업(조립금속·기계장비)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1.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91.
- _____, 『직업훈련사업현황』, 1996. 8.
- _____, 『월간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996. 12.
- _____,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7.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 1994, 1997.
- 박남건·김현정, 『산업인력의 수급구조분석과 향후대책』, 산업연구원, 1991.
- 박남건·이덕희·김현정, 『산업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1990.

- 박성준, 『고령화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 배무기,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경제논집』, 1982. 12.
- _____,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 1991.
-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윤석구,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과 확충방안 - 광주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경제연구』, 제3집, 광주직할시, 1990.
- 이대근 외,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Ⅱ)』, 한국경제연구원, 1991.
- 이종구, 『일본의 지방자치와 노동행정』,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임성훈, 『한국자동차 독점대기업의 노동통제와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1996.
-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1997. 10.
- 정연택,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4, 1987, 1990, 1993.
- _____,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 한국노동연구원, 『'96 해외노동통계』, 1996.
- 한국은행 광주지점, 『여수·순천권 공업단지현황 및 입주업체 실태조사결과』, 1991. 7.
- 홍성우, 「광주지역 노동자상태-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 _____, 「독점대기업 하청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하청기업 사례연구」, 『노동경제논집』, 1991.
- _____, 「광주권 산업인력의 수급현황과 개선방안」,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권 산업인력의 수급현황과 개선방안』, 1992.
- _____,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시장과 대기업 인력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1994.
- _____, 「노동」, 광주경실연, 『광주전남 이렇게 바꾸자』, 1995.

홍성우 외, 「광주지역 시간제 노동시장분석」, 미간.

Appelbaum, E. and R. Schettkat, eds., *Labor Market Adjustments to Structural Change and Technological Progress*, Praeger, New York, 1990.

Brighton Labour Process Group, “The Capitalist Labour Process”, *Capital and Class*, No.1, 1977.

Pyo, Hak K., “A Time-Series Test of the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Human Capital,” Takatoshi and Anne O. Krueger eds., *Growth Theories in Light of the East Asian Experiences*,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5.

Tilly, Chris, *Half a Job*, Temple Univ. Press, 1996.

● 洪性宇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전남대 경제학 박사
-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 現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李建喆

- 전남대 경제학 박사
- 現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장

지역노동시장 연구(Ⅲ)

- 광주·전남지역 -

1998년 3월 25일 인쇄

1998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烜求

발행처

주소 150-0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인쇄 成紋印刷社

(代) (02) 272-7553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